

복 지 야 성

사
회
사
업
에
대
한
성
찰

복지야성

사회사업 野性, 野省, 野聲

2017년 9월 9일

servant@welfare.or.kr 010-3080-8197, 02-822-2643

원고를 홈페이지(welfare.or.kr)에 한글과 PDF 파일로 공유합니다.

본문 용지는 고지율 100% 재생지 '이플러스'이고, 표지 용지는 고지율 55% 재생지 '양코르'입니다.

본문	7.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76
복지기계 3	8. 지역 주민이 자원? 77
자연주의 사회사업 16	9. 주간보호센터 78
직업윤리 23	10. 빈곤아동센터 79
전문가 33	11. 폐지와 복지사업 80
소진과 타성 40	12. 결인을 만날 때 81
선택과 한계 48	13. 먹고사는 문제 82
사회복지 운동 56	14. 복지정책과 사회사업 83
행복 60	15. 무임승차 84
자원봉사 64	16. 원칙과 변통 85
	17. 지원신청 87
단편	18. 학습권 운동 90
1. 근본이 없으면 69	19. 행사 방식 91
2. 전공자 70	20. 사회사업이 무엇입니까? .. 96
3. 끝까지 '삶'이게 71	21. 사회사업 동기 97
4. 복지사업 문제 72	22. 고기가 필요한 사람 199
5. 사회복지사를 대상자로 73	23. 이념과 관점 100
6. 사회복지사는 힘들다? 74	24. 강점 사회사업 101
	25. 티핑 포인트 105

복지기계

1. 복지사업 역사와 복지기계

복지사업 역사는 전문가주의 발달사업입니다.

복지를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사업으로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 속에 있던 복지 기능을 사회복지사와 복지기관의 일로 하나둘씩 접수해 온 전문가주의의 복지 정책사업입니다.

전문가주의 발달사는 복지기계 발달사업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을 사회복지사와 복지기관의 복지기계로 대체해 온 역사입니다. 복지기계를 만들고 운용하며 그로써 복지 자연력을 위축 퇴화시켜 온 역사입니다.¹⁾

1) 사람에게는 복지 본성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자주하려는 마음, 책임 의식, 자존심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남을 도우려는 마음, 공동체 의식, 동정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복지 역량과 자원이 있습니다. 스스로 돕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물질 재능 경험 정보 지식 지혜 체력 시간 공간 인맥 따위가 있습니다. 이런 복지 본성과 역량과 자원이 복지 자연력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을 놓아두고 복지를 이루어 주는 수단이 복지기계입니다. 사회사업가의 재주나 복지기관의 자원으로 복지를 이루어 주는 일이 복지기계입니다. 그 재주나 자원이 복지기계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는 사회사업가나 복지기관이 복지기계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을 대체하는 제도 서비스 예산 시설 기술 따위가 복지기계입니다.

복지 전문가주의는 사람과 사람살이를 바꿔 놓았습니다.

당사자를 복지사업 대상자나 후원 봉사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더러는 실제 재료나 상품 소비자로 쟁탈하게 되었습니다.

둘레 사람을 복지사업 자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더러는 복지 상품으로 팔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살이를 복지사업이나 후원 봉사, 더러는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살이 속에 있던 복지 기능을 사회복지사와 복지기관의 사업으로 만들면서 더러는 후원이나 자원봉사, 보험 급여나 바우처 상품, 학점이나 절세 수단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전문가주의 발달사는 이렇게 사람을 대상화하고 이익의 재료로 쟁탈해 온 역사입니다. 사람살이를 제도로 상품으로 돈벌이로 바꾸어 온 역사입니다.

그 중심에 복지기계가 있습니다.¹⁾

1) 복지사업 역사에 이런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복지사업 역사를 늘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언어 관심 지식 통찰력 따위의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다 보지 못합니다. 볼 수 있는 것, 보이는 것,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복지사업 역사 그 본질이나 실상을 모두 헤아릴 수 없고 그 자체 그대로 그려낼 수도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건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또 일부만 주관에 따라 선택, 해석, 설명합니다.

역사는 누가 어떤 의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쓰이고 다르게 읽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삶을 빼앗는 복지기계

복지사업으로 당사자의 삶을 빼앗는 일이 있습니다.

삶을 거두어 생존을 돕는 복지기계가 있습니다.

어설피고 힘들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그래도 당사자의 삶으로 생활하게 도우면 좋을 텐데, 세련되고 쾌적하고 풍족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복지기계로 바꾸어 생존 연명케 합니다.¹⁾

1) ‘노인복지혁명’ 이전의 노인복지사업이 그랬습니다.

최첨단 시설에 수용하여 뛰어난 기술과 친절로써, “어르신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하며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안정시켜 드렸습니다.

그렇수록 어르신 당신이 주인 되어 누리는 당신의 삶, 당신의 생활은 멀어졌습니다. 가족 친척 동료 친구 선후배 이웃, 그렇게 평생 어울려 살아온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도 멀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인격적 사회적으로 고사되어 갔습니다.

“어르신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겠으나, 자칫 인격적 사회적 죽음을 재촉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격적 사회적 생명은 끝났다.’는 사망 선고 또는 ‘이제 인공 복지로 대신하겠다.’는 연명 서비스 개시 선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3. 우민화하는 복지기계

자주성은 숫돌 닳듯 스러지고 의존성은 봄 동산 풀 자라듯 점증합니다.
자존심 염치 예의 체면 팽개치고 굽실거리거나 애 같은 노릇 하거나 받
는 데 길들거나 호의를 악용하거나 욕심부리거나 의존하려 듭니다.

우민화하는 겁니다. 복지기계가 사람을 우민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민화하면 삶을 거두어 생존 연명시켜도 고맙다 합니다.

이렇게 혼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흐리니 그 폐해가 어찌 작다 하겠습니까?
사람다움을 생각지 않고 돕는다면 어찌 우민복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4. 사람을 떼어 놓는 복지기계

노인이 사라져 갑니다.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복지시설로 갑니다. 남은 노인들은 복지 서비스 찾아 몰려다닙니다. 자존심 염치 체면 품위 따위는 팽개치고 앞 다투어 달음질합니다. 동네에서 노인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이느니 오갈 데 없는 노인, 병원 요양원 복지시설에 못 가고 복지관에도 갈 수 없는 노인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노인을 데려갑니다. 가정과 동네에서 구실이 줄어들거나 입지가 좁아진다고 아예 허물어 버리고 노인들의 별천지를 만듭니다. 가족이나 동네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기회를 앗아 갑니다. 어른 노릇은커녕 당신 삶의 주인 노릇 하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노인은 노인끼리! 이렇게 노인 복지 별천지를 만드는 게 불편합니다. 노인을 떼어 놓는, 노인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복지관 고려장이라 할지 모를, 이런 일에 사회사업가가 가세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노인뿐 아닙니다. OO복지원, OO촌, 영구OOOOO... 마치 뭐 분류 수거하듯 약자를 분류 수용하는, 마치 뭐 쓸어 담듯 약자를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복지관 인종 청소라 할지 모를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회와 분리되어 복지기계로 생존 연명하는 약자가 있습니다.

약자 복지 별천지, 약자 집단 거주지, 어떤 곳은 유배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곳의 사회사업가라면 ‘해배’를 도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리적 해산은 몰라도 사회적 해배는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릇 사회사업가라면 약자를 분류 분리하는 일에 삼가 나서지 말고 방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불가촉천민 흉악범 전염병자 다루듯 약자를 떼어 놓으려는 체제에 하수인 노릇 하거나 가세해서는 안 됩니다.

5. 복지기계의 모순¹⁾

1) 소외 모순

소외된 사람의 복지를 이루는 과정에서 당사자를 소외시킵니다.

당사자의 복지를 위한 일인데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지’ 않으니 당사자가 소외됩니다.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수단이나 자원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니 당사자가 소외됩니다.

당사자를 놓아두고, 당사자 모르게, 당사자가 선택 참여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지를 이루어 주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제 삶 제 복지에서조차 소외됩니다.

사회 경제적 소외에서 인격적 소외로

상대적 소외에서 절대적 소외로

외적 소외에서 내적 소외로

이렇게 더욱 구차하고 서글픈 소외로 악화합니다.

참조 : 65쪽 ‘자원봉사에서의 소외’

1) 복지기계 자체의 모순도 있습니다.

약자를 줄여야 할 사회사업가가 약자가 있어야 먹고살 수 있고, 문제를 줄여야 할 복지기계가 문제가 있어야 유지되는, 이 현실이 모순입니다.

약자를 돕기 위해 사회사업가가 있지만 실상은 사회사업가를 위해 약자가 필요? 하고,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복지기관이 있지만 실상은 복지기관을 위해 복지사업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도우려고 복지기계를 만들지만 후에는 복지기계를 유지하려고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이용합니다.

이처럼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현실이 모순입니다. 복지기계의 존재 모순입니다.

2) 자주 모순

스스로 복지를 이루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서 오히려 그 자주성을 해칩니다. 자주하던 삶까지 잠식 침식하여 복지 중독을 일으키고 자주성을 마비시킵니다.

대상자 처지가 되지 않게 해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이런저런 사업의 대상으로 끌어들이습니다. 대상자 쟁탈전도 불사합니다. 생사람 잡아 대상자 만들기도 합니다.

대상자 처지를 벗어나게 해야 할 사람들을 고정 대상으로 굳히고 심지어 종합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대상자 처지라도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상자가 아니게 해야 하는데, 대상화하여 복지를 이루어 줍니다.

후원자 봉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상자 처지를 방치하거나 조장하기도 합니다. 따로 떼어 통제해 주기 바라는 사회 체제에 말려들어 본의 아니게 당사자의 자주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당사자 스스로 사회사업가에게 알아서 해 달라고 내맡기기도 합니다. 대상자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고 대상화에 저항하다가도 차츰 익숙해 집니다. 자주성이 마비되어 갑니다.

마약 같은 복지 서비스 그 중독성 때문입니다.

3) 공생 모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든다면서 약자를 따로 떼어 돕습니다.

사회사업가나 복지기관이 약자를 직접 도우니 지역사회는 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부담감이 줄어들고 약자와의 관계 소통도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제 마당 제 샅터에서 약자를 도울 일은커녕 만날 일조차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약자는 더 소외되고 사회는 더 비인간화합니다.¹⁾

메마른 사회를 위한다면서 복지 우물과 시내를 버리고 복지 저수지를 만듭니다.

지역사회 사람 사이에 두루 스미어 흘러야 할 복지를 복지 저수지에 끌어모아 복지 수도를 통해 공급하니 복지 우물과 시내가 죽어 갑니다.

복지 저수지로 이웃 우물과 인정 시내를 대신하니 지역사회가 더욱 메마릅니다.²⁾ 지역사회 사람 사이에서 이웃과 인정이 사라져 갑니다. 공생성을 잃어 갑니다. 사람 사는 맛을 잃어 갑니다. 인간적인 세상에서 멀어져 갑니다.

1) 따로 떼어 도우면 당사자의 관계망이 약해집니다. 지지체계가 허술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져 버리게 됩니다. 문제에 대하여 더욱 취약해지고 복지기계에 더 자주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약자를 돕겠다면서 따로 떼어 도우니 관계망 곧 지지체계가 허술해져서 약자가 더 취약해지는 문제, 약자를 돕는다면서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드는 문제, 이 또한 복지기계의 모순입니다.

2) 제 마당 제 샅터에서 평범한 사람살이로 주고받던 나눔 도움이 줄어들습니다. 제 마당 제 샅터를 벗어나 행하는 후원 봉사로 복지 저수지 복지사업에 흡수됩니다. 복지 우물이 마르고 인정 물길이 끊어집니다.

6. 복지 공해

정신을 흐리게 하고
관계를 시들게 하는
복지 공해

7. 악순환

복지기계가 고도화하면 부작용도 고도화합니다.

복지기계가 뛰어가면 문제와 욕구는 날아갑니다.

복지기계가 날아가면 내성과 욕심은 타고 갑니다.

갈수록 바빠지고 힘들어집니다.¹⁾

1)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타는 사람 있다 합니다.

복지기계를 쓰면 오용 남용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지책을 만들어도 교묘히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8. 복지기계의 혐의

당사자가 대상화 우민화합니다.

지역사회가 타자화 자원화 비인간화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이 퇴화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이 죽어 갑니다.

복지기계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복지기계가 이런 사태에 편승 가세하여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방 결정타를 더하여 아주 허물어 버리는 복지기계의 영향은 실로 가공할 만합니다.

지역사회 이웃 간의 나눔 도움을 후원 봉사로 바꾸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배타적 복지대행업으로 바꾸고 비인간적 제도 상품으로 바꾸어, 자주하던 삶 공생하던 사람살이를 급격히 약화 소멸 변질케 하는 영향을 만만히 볼 수 없습니다.

심지가 꺼져 가고 갈대가 상하는 것을 복지기계 탓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복지기계는 꺼져 가는 심지를 덮어 버리고 상한 갈대를 꺾어 버린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민화하고 사회가 비인간화하는 데 복지기계가 한몫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복지기계 닿는 곳에 혼을 잃어 가는 사람이 있고

복지기계 성할수록 관계 소통 쇠하는 사회가 있으니.

9. 복지기계 비판의 한계

복지기계라야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복지기계의 효용이 너무 큼니다.

복지기계의 위력을 생각하면

복지기계 비판이 무모하거나 부질없어 보입니다.

복지기계라도 있어 다행인 당사자,

복지기계를 원하는 당사자,

복지기계를 쓸 수밖에 없는 사회사업가,

복지기계와 잘 맞는 사회사업가,

이런 당사자나 사회사업가를 생각하면

복지기계 비판이 공연한 트집 같아 보입니다.

10. 안전장치

‘너무 따지지 말자.’

이러다가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사회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입니다.

좋은 뜻으로 해도 좋기만 한 건 아니라,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인간사 새옹지마라, 과연 약인지 독인지, 결국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릅니다. 필요성이나 효용 또는 좋은 점만 내세워 별일 일이 아닙니다.

복지기계는 더욱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되도록 복지기계를 쓰지 않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소박하게 복지를 이루고 누리게 함이 좋겠습니다.

부작용이 없거나 적게 할 수 있는 방법, 평안하고 오래갈 방법입니다.
사회사업 안전장치입니다.

자연주의 사회사업

1. 개념

1) 수단의 자연주의

자연주의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자연력’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는 사회사업입니다.

사람에게는 복지 본성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자주하려는 마음, 책임 의식, 자존심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남을 도우려는 마음, 공동체 의식, 동정심이 있습니다. 또한 복지 역량과 자원이 있습니다. 스스로 돕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강점 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본성과 역량과 자원이 복지 자연력이고 이 자연력을 생동시키는 방법이 바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입니다. 자연주의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그 자연력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2) 형식의 자연주의

자연주의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사람살이’이게 하는 사회사업입니다. 참조 : 복지요결 철학 편 ‘보이지 않게 합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살이이게, 그렇게 보이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저마다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사회의 일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속에서, 자연스러운 사람살이로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참조 : 복지요결 방법 편 ‘사회사업 방법의 조건’ - 복지의 ‘자연’을 생각합니다.

2. 배경

1) 직접 지원 방식의 폐단

복지기관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복지사업으로 직접 돕는 방식은

- ① 비용이 많이 듭니다.
- ②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 ③ 사회통합을 더디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¹⁾
- ④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자연력, 복지 바탕을 해칩니다.

2) 자존심

인격적 복지, 인간적 복지, 자연스러운 복지를 원합니다.
도움을 받을지라도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알고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선택 활용하는 주체적 인간이고 싶습니다. 항생제나 수술 같은 서비스에 내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일방적 서비스 대상이고 싶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의 서비스는 싫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고, 선택 통제하고 싶고, 제구실하고 싶습니다. 내 삶 내 복지의 주인 노릇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 앞에 애 같은 노릇 약자 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미루어 사회사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돕고 싶습니다.

1)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역사회가 약자에 대하여 적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3. 출처

자연주의 사회사업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외국 사례가 있느냐? 어떤 이론과 같으냐? 합니다.

자연주의 사회사업이 어느 사회사업 이론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어떤 이론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다중 원천 : 영감 근본 전통 이성 경험

- ① 목상으로 영감을 얻습니다.
- ② 고전에서 근본을 찾습니다.
- ③ 사회사업 문헌을 참고합니다.
- ④ 이성으로써 궁리하고 따져 봅니다.
- ⑤ 경험에서 배우고 경험에 비추어 따져 봅니다.

참조 : 복지요결 '사회사업 연구 방법'

한국적 사회사업?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생각할 뿐입니다.¹⁾

외국 이론이나 사례가 있든 없든, 외국과 다르든 같든, 한국적이든 아니든, 사람다운 삶 인간적인 사회를 좇아 마땅함을 구할 뿐입니다.

1) 더하여 다른 생명이나 자연에도 유익한 사회사업, 해롭지 않거나 덜 해로운 방식의 사회사업을 생각합니다.

4. 전문가주의와 자연주의

전문가주의는 복지를 사업으로 소유하고, 자연주의는 복지를 생활로 소통시킵니다.

전문가주의는 사람을 대상자나 자원으로 끌어들이고, 자연주의는 각 사람을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자주 공생하게 합니다.

전문가주의는 외장형 복지에 주력하고, 자연주의는 내장형 복지에 주력합니다.¹⁾

전문가주의는 복지사업을 이야기하고, 자연주의는 ‘당사자의 삶, 지역 사회 사람살이’를 이야기합니다.

전문가주의는 복지기계를 쓰고, 자연주의는 자연력을 쓰게 합니다.

전문가주의는 배타적 독점적 정복자의 길을 가고, 자연주의는 복지를 만인의 삶으로 놓아주는 해방자의 길을 갑니다.²⁾

전문가주의는 복지가 자연스러운 사람살이에서 멀어질수록 선진 복지사회라 하고, 자연주의는 복지가 자연스러운 사람살이에 가까울수록 좋은 복지생태라 합니다.³⁾

1) 내장형 복지 :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속에 있는 복지

2) 보통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활에 속하던 일을, 전문가들이 가져가서 특별한 일로 만들었다가, 보통 사람들에게 돌려주거나 함께하려 합니다. 음악 미술 운동 문학 요리 언론 철학 종교 교육 의료 여러 영역에서 그러합니다. 복지는 사람들 개개인의 자율에 속한 일이었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상호부조로써 이루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돌려주는 겁니다.

3) 복지생태는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이웃과 인정이 있는 사회의 사람살이 생태입니다. 일반 복지 수단 속에, 사람들 사이에, 복지가 흐르는 사회생태입니다.

5. 자연주의 복지 공작소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분업화로 사회구조와 생활방식이 바뀌고 개인이나 전통적 공동체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와 다양한 욕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개입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회사업가들이 전면에서 나서더니 아예 대신해 버리고,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대상자와 보급 부대쯤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제 다시 사람들이 복지 주체로 나서게 합시다. 저마다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합시다.

사람 속에 사람 사이에 천부적으로 잠재하고 자연스럽게 발현하던 복지 기능을 회복하고 생동시킵시다. 복지를 복지시설에 집어넣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복지사업으로 만들기보다, 본디 있던 곳 지역사회 사람 사이 어디에나 두루 스미어 흐르게 합시다. 사람들의 인간관계와 일상생활 속에 복지를 내장하고 소통시킴으로써, 특별히 복지로 드러나 보이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어디에나 복지가 있고 무엇이나 복지 기능을 하게 합시다.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를 약자도 함께 이용하고 함께 누리게 합시다. 복지를 해체하고 놓아주어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살림살이’가 되게 합시다.¹⁾

자연주의 복지 공작소²⁾를 열며... 2002. 10. 5

1) Natural-Fare : invisible, ubiquitous, universal, normal welfare for all

Let it be the life of the client, by the client, in the client.

Let it be the life of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in the community.

2) 자연주의 복지 공작소 dewelfare.net

dewelfare는 복지를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de-professionalized welfare 곧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독점 대행하는 복지사업을 해체하고,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풀어내자는 뜻입니다.

6. 유비쿼터스 복지 혁명

1990년대 초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걸 알고서 복지 지향을 ‘복지로 보이지 않으나 어디에나 있는 복지’로 정했습니다. 유비쿼터스 복지 혁명을 일으키자! 했습니다.

유비쿼터스 복지 혁명은 지역사회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속에, 사람들의 인간관계와 일상생활 속에, 복지 기능을 내장하고 소통시키는 일입니다.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어디서나 무엇으로나 사실상 복지 기능을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¹⁾

10년이 지난 오늘, 다시금 가슴 설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²⁾

1) Invisible Ubiquitous Welfare

“그는 화학을 모릅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수많은 화학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OO화학은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의 삶, 보이지 않는 곳에 OO화학이 있습니다.”

2005. 11. 10 여의나루역 버스 정류장에서 본 광고입니다.

2) ‘U코리아 비전 : 제3공간에 대한 도전과 기회’ 전자신문 2002. 4. 15.

① U코리아비전 : e코리아 → U코리아

e코리아 계획은 초고속망과 PC 등 IT인프라를 대량으로 보급하여 물리공간에 있는 사무실·가정·개인·사물 등을 컴퓨터 속에 가급적 많이 집어넣어 정보화하겠다는 전형적인 정보화 전략 모델이다. ~ U코리아는 반대로 물리적 공간과 대상에 컴퓨터를 많이 심어 놓아 손에 닿는 대로 발길이 가는 대로 컴퓨팅환경에 접하게 하겠다는 패러다임 전환적 발상이다.

②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 개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실세계의 각종 사물들과 물리적 환경 전반에 걸쳐 컴퓨터들이 편재되게 하되 이것이 사용자에게는 컴퓨터로서 겉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환경 내에 효과적으로 심어지고 통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용자가 컴퓨터라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서도

이 기사를 사회사업 이야기로 읽어도 좋겠습니다.

① 복지제도 복지시설 같은 복지전용체계를 많이 만들어서 그 속에 온갖 복지를 집어넣는다?

지역사회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속에, 사람들의 인간관계와 일상생활 속에, 복지를 두루 내장하여 어디서나 무엇으로나 복지를 누리게 한다!

② 유비쿼터스 복지사회는 복지가 어디에나 있되 특별히 복지로 드러나 보이지 않고, 낙인 없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습니다.

③ 유비쿼터스 복지 혁명은 복지를 세상에 풀어 놓는 일입니다. 지역 사회 속에, 사람 사이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복지를 복지시설에 집어넣을 것인가, 세상에 풀어 놓을 것인가? 복지 별천지를 만들 것인가, 보편적 복지 세상을 만들 것인가?

2002. 4. 16

언제, 어디서나 도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③ 21세기 아젠다 - U코리아 비전

인류역사상 도시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에 이어 네 번째로 유비쿼터스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정보혁명은 전자 공간 속에 사무실과 쇼펍과 도서관을 집어넣고 시공을 초월하는 마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물리 공간에 남아 컴퓨터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대상이 훨씬 더 많다. ~

유비쿼터스 혁명은 반대로 물리 공간 속에 컴퓨터를 집어넣는 것이다. 도로, 다리, 터널, 빌딩, 건물 벽, 천장, 화분, 냉장고, 구두, 시계, 종이, 물 컵, 책상 등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수많은 환경과 대상물 속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를 심는 것이다.

직업윤리

1. 좁은 문, 험한 길, 낮은 자리

학벌이 좋을수록 더 어려운 곳에 헌신해야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일을 맡아야 합니다. 먹고살 만한 사람일수록 보수가 더 적은 곳에서 봉사해야 합니다.¹⁾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좋은 자리 꿰차고, 많이 배운 사람이 쉬운 일 편한 자리에 안주하고, 먹고살 만한 사람이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면, 세상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보수를 더 주는 곳, 높은 자리, 편안한 직책... 좋은 것을 다 차지한다면, 이는 이른바 ‘우월한 지위’의 남용이고 오용입니다.²⁾

어디서나 사회사업할 수 있고 하기 나름이지만 좁은 문, 험한 길, 낮은 자리로 다투어 가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거나 뜻이 있어서 대도시 복지관이나 병원 연구소 정부기관 같은 곳에 간다면 그곳에서 남보다 더 수고하고 희생 봉사해야 합니다. 답습 안주하지 말고 개혁 개선 개발 공유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1) 김OO 선생은 대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꿈꾼다. 좋은 곳에 가지 않기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기를. 혜택 받은 만큼 더 열심히 땀 흘릴 수 있기를.

2002. 10. 11 ‘혜택 받은 사람, 내가 갈 길’ (광화문 게시판 2264번 글)

2) 대도시 복지관과 달리 지방 시설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도서 지역, 산간벽지, 농촌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회복지 공부한답시고 불평등이니 재분배니 하지만, 사회사업 현장의 불평등은 자못 심각합니다.

2. 사회사업 신화

사회복지사는 가난하다.
사회복지사는 힘들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다릅니다.¹⁾

1) ① 사회사업가는 가난하다?

사회사업가는 영세민 수준이다, 사회사업가끼리 결혼하면 수급자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합니까? 그런 사회사업가를 보았습니까? 특별한 사정 때문에 가난하거나 스스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있지만, 사회사업가라서 가난한 사람은 드뭅니다.

관점의 차이라고요? 상대적이라고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여 권리를 다 누리지 아니하고 청빈하게 살 순 없을까요?

② 사회사업가는 힘들다?

공장 노동자,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미용실, 슈퍼마켓, 편의점, 옷가게, 식당, 유흥업소, 경찰관, 정치인, 연예인, 아나운서, 공무원, 교사, 대학교수, 작가, 영화배우, 개그맨, 디자이너, 목사, 기업인·사업가,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변호사, 의사, 약사...

어떤 직업이 사회사업가보다 편해 보입니까? 그런 직업 찾기 쉽습니까?

그래도 다른 직업보다 힘들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시민단체나 언론, 소비자, 경쟁업체의 압박이 다른 직업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현장의 힘든 일 곳은일은 주로 저학력자나 자원봉사자가 해 왔습니다. 4년제 대학교 전공자로서 힘든 일 곳은일 하는 사회사업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문서 업무 말고 현장 서비스에서 곳은일 힘든 일 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곳은일이라는 게 대개 단순한 일인데 그렇게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사회복지사만큼 보수를 주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복지 1세대 가운데 외원 기관을 제외한 일반 복지시설을 두고 생겨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양로원 재활원 고아원, 이른바 수용시설 위주로 하던 때의 실정을 두고 나온 말일 겁니다.

이사장이나 시설장은 몰라도 보모나 생활교사 같은 분은 가난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그 분들을 보고 ‘가난하다, 힘들다’ 했을 겁니다. 그때는 그랬을 겁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학교에서 사회사업을 전공하고 이른바 수용시설에서 보모나 생활교사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가난하다거나 힘들다는 말은 사회복지사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구나 지금은 그때와 판이합니다. 그런데도 걸핏하면 저 전설 같은 이야기로 자기를 연민 동정하며 불평 엄살하는 꼴은 자못 남우세스럽기까지 합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선배 이야기입니다.

남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 뒤로 구차히 숨지 맙시다.

우리의 부끄러운 실상을 이런 신화 따위로 호도하지 맙시다.

참조 : 74쪽 ‘사회복지사는 힘들다?’, 76쪽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지금 사회사업가는 대체로 중산층에 가깝습니다.

극빈하거나 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는 사회경제적으로 다르고 정서적으로도 가깝지 않습니다. 더구나 일단 제도권 기관에 정착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한 생활에 젖어 갑니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 갑니다. 사회사업 야성을 잃어 갑니다.

출신 자체가 다를 뿐 아니라 갈수록 대상자들의 삶과 대조되어 위화감이 커져 갑니다. 누추한 곳, 거친 음식, 불편함이나 고생을 차마 견디지 못하고 심란해합니다. 안주하려 합니다. 대도시 복지기관 사회사업가는 더욱 그러합니다.

복지 귀족¹⁾에서 멀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거나 힘들면 사회사업가이기에 차라리 다행스럽고 고마운 조건이려니와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 때때로 거칠고 부족하고 힘든 상황을 스스로 취하여 정신을 깨우고 몸을 깨우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쳐서 다스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일에 젖어 들기 쉽고 결국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고 복지사업 효용은 미미한데 사회사업가에게 쏟아 붓는 돈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를 위한 복지사업인지,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지 모르겠다 합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로 대부분 빠져 버리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밖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업귀족 있는 한 농업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했는데, 사회사업도 그렇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3. 사회사업 세속화

‘월급 적다, 근무 조건 열악하다, 알아주지 않는다.’ 합니다.

능력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효용보다 많은 경비를 써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전문가로 인정해 달라고 하거나 스스로 전문가라 칭하기까지 합니다.¹⁾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매일처럼 보고 들으면서도 제 밥그릇, 제 권익을 부르짖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은 별 볼일 없고 항상 부족하기만 한데 그에 비해 사회사업가가 쓰고 누리고 챙기는 몫이 너무 큼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책임을 자기에게서 찾기보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남 탓과 핑계와 조건 타령을 늘어놓습니다. 제 두레박줄 짧은 줄은 모르고, 우물 깊다 불평합니다. 걸핏하면 힘들다고 엄살을 입에 달고 삽니다.

좁은 문 험한 길 낮은 자리 외면하고, 넓은 문 평탄한 길 높은 자리 다룹니다. 개척하기보다 소위 좋은 직장에 안주하고, 편한 자리 좋은 업무 맡으려 합니다. 희생 봉사를 싫어할 뿐 아니라 오히려 폄하하고 멸시합니다.

1) 검증되지 않은 모호한 지식, 일반화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지식을 아주 조금, 그것도 어설픈 배웠으면서도, 별나게 신통한 지식·기술이라도 있는 것처럼 전문가답시고 대접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실질을 지녔단 말입니까? 있다면 자랑할 마음부터 막아야 할 텐데,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어찌 근심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능력과 효용에 지나도록 칭찬과 대우를 받게 될까 염려할 일입니다. 우물 깊다 한탄하지 말고 내 두레박줄 짧음을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사명감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야 택하던 일인데, 유망 직종에 드니 이제 서로 하려 듭니다.

처우가 좋아지면 좋기만 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며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겠습니까?

너무 세속화했습니다. 진정성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명예와 이익 앞에서 염치도 체통도 팽개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사회복지사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서지 않겠습니까?¹⁾

내려가야 합니다.

낮게 녹아들어
소리 없이 깊게 흘러야 합니다.

1) 이 글을 쓴 때의 의도는, 낮은 자세로 희생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단체 기업이 복지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2008. 12. 11

4. 사회사업 3대 위험

사회사업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회사업 자체의 위험에 가깝습니다.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불평등한 관계

사회사업가와 대상자 관계는 불평등하기 쉽습니다. 사회사업가가 대상자를 아래로 대하는 모양새이기 쉽습니다.

사회사업가 쪽의 재주나 재화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거나 나눠 주는 방식이 특히 위험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재주나 재화를 권력인 양 행사하고 대상자는 구차히 애 같은 노릇 약자 노릇 하기 쉽습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가 당사자의 자원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도와야 합니다. 남의 힘이나 자원이 필요하면 당사자가 찾아 활용하게 도울 일입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지 않으면 사람을 대상화하여 무엇을 해 준다는 것인데, 해 주는 사람과 대상자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대상화, 종합 대상자 취급, 대상자 확대

① 사람을 ‘대상화’하기 쉽습니다.

서비스나 프로그램 과정, 욕구 해결 과정에 당사자를 주체로 세우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지 않으면, 이것이 곧 사람을 대상화하는 겁니다.

② 종합 대상자 취급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로 도움을 받는 이유는 그때 그 상황 그 일에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에서도 다 무능하거나 열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사업가는 대상자를 늘 약자인 것처럼 대하기 쉽고 종합 대상자 취급하기 쉽습니다. 온갖 일에 보호자 후견인 선생인 양 가르치려 들거나 도와주려 하기도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부지중에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가난한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 행색이 초라한 사람, 어눌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을 대하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참조 : 복지요결 '상황적 약자, 약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③ 대상자를 늘리기 쉽습니다.

사업 규모를 맞추기 위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실적을 위해, 대상자를 확보하고 대상자를 늘리려 합니다. 심지어는 생사람 잡아 복지 대상자 만들기도 합니다. 대상자 쟁탈전도 불사합니다.

그러나 사회사업은 대상자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대상자를 자기 삶의 주체로 세워 사실상 대상자가 아니게 하는 일입니다. 대상자 처지를 벗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3)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 칭찬 감사

① 자랑하기 쉽습니다. 과장하여 뽐내기까지 합니다. 알아주기 바라고 심지어는 감사나 보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구차합니다. 참조 : 복지소학 '자랑'

② 사회사업한다는 사실만으로 칭찬 감사를 받기 쉽습니다. 수고한 정도나 일의 효용에 지나도록 칭찬 감사를 받기 쉽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칭찬 감사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자신감과 의욕을 높이지만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 일어나고 구설수에 오르기 쉬우니 시험이고, 자랑하려는 마음조차 은근히 일어나니 시험입니다. 참조 : 복지소학 '상찬'

5. 직장을 자주 옮기지 말자

직장을 옮길 때 어찌 깊이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나름대로 뜻한 바가 있거나 사정이 있겠지요. 그래도 옮겨 다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기관을 쉽게 선택하고 쉽게 버리면 기관도 그런 사람은 쉽게 부리고 쉽게 버릴 겁니다. 기관을 일회용 연습용처럼 활용하면 기관도 그런 사람은 일회용 소모품처럼 버릴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키우려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저 그런 일에 대충 부리고 말 겁니다.

참을성 있게 일하지 않으면 기관도 그를 참을성 있게 키워 주지 않을 겁니다. 기관을 까다롭게 비판하면 기관도 그를 까다롭게 평가하고, 사소한 일에 따지고 불평하면 기관도 그의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고 통제하게 될 겁니다.

남과 경쟁하면서까지 자천하여 취업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자리인데 몇 년도 못 가서 버리니 안타깝습니다.

몇 년 사이에 옮기고 또 옮겼는데, 얼마 못 가서 또 옮긴다면 영영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계가 그리 넓은 곳이 아니라 이전에 어떻게 해 왔는지 곧 알게 됩니다. 특히 시설에서 복지관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지방에서 서울로, 민에서 관으로 옮기면, 좋은 조건 찾아 현 직장을 저버리는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느라 현직에 성실하지 못했으리라는 혐의도 따릅니다. 언젠더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날지 모를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게 됩니다.

더구나 언제까지 말단 직원이겠습니까? 자기는 후배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을까요?

경력도 문제입니다. 경력이 누더기 같이 될 텐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사회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지역사회를 파악하고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1년쯤은 걸립니다. 또한 기관에 적응하고 업무에 익숙해지는 데도 1년쯤은 걸립니다. 그동안은 월급 받는 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겁니다. 2년차는 되어야 겨우 손해를 면할 수 있고 3년은 지나야 투자한 것보다 더 큰 값어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곳에 따라 다르겠지만...

새로운 곳이나 새로운 일에는 적어도 1년쯤 미친 듯이 몰두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을 겁니다.

어느 곳 어떤 일이든 1년쯤 전념하면 문리가 트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문헌을 살피고 선행 사례를 배우고 발바닥 닳도록 두루 다니며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전문가

1. 전문가라 하려면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는 일 곧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¹⁾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남다르게 갖춘 지식이나 기술이 있습니까?²⁾

타고난 재능이나 개인적 노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공자라서 비 전공자와 다르게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³⁾

1)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실은 별거였었는데, 기껏해야 속 보이는 옷을 겨우 걸쳤을 뿐인데...

별거벗은 사회복지사.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것만 같습니다.

2) 검증하거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이론을 아주 조금, 그것도 어설프게 배웁니다. 전공이랍시고 이렇게 배우니 어찌 전문가라 자부하겠으며 어찌 전문가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실질이 없는데 전문가라 하면 이는 부끄러운 명예이니 차라리 무시당하느니만 못합니다.

3) 특별한 곳에서 많이 제대로 배워서 남다르게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전공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일반 복지기관의 일선 실무자가 되거나 일선 실무자로 오래 일하기 어렵습니다. 올라가서 슈퍼비전이나 하고 강의나 하지 직접 써먹는 일이 드뭅니다. 그런 전공자가 있다 해도 그렇다고 '사회복지 전공자는 전문가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2. 전문적인 일이라면

사회사업, 누구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회복지사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일까요? 글썄요, 사회사업은 대개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라고 더 잘하는 일도 아닙니다.¹⁾

사회사업 그 어떤 일이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은 아주 드물 겁니다.

사회사업에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사회복지사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을 잘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그건 사회복지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²⁾

1)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누구나 자료 찾아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궁리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경험으로써 터득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회복지 전공보다 개인의 성품 소질 열정 노력으로 좌우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2) 사회복지사 가운데 전문가라 할 만한 실력과 철학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육복지 전문가도 있고 복지영상 전문가도 있고 상담 전문가도 있고 청소년활동 전문가도 있고 홍보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다.’ 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보면 그렇다 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사 가운데 대다수는 사실상 사회사업 문외한이고 일부 소수만 사회사업하는데 다 자기 일에 특별한 실력과 철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라는 사실로써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 가지 일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라면 사회복지사도 전문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특별한 지식과 기술로써 하는 사람, 특정 분야에 남다른 실력과 철학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의 전문가라 하기에는 아무래도 군색해 보입니다.

3. 전문성¹⁾

1) 생태체계 관점

한동안 생태체계 관점을 사회사업 전문성의 상징인 양했습니다. 사람을 환경 속에서 이해하고 그 생태를 헤아려 돕는다는 점이 여타 인간봉사직과 구별되는 전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사업에 고유한 관점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라고 더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사가 더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에 치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기획서 쓰기

한동안 기획서 잘 써서 자원 많이 끌어오는 능력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인 양했습니다. 이로써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서 내서 지원금 받는 일은 사회복지사라서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구소 대학 시민단체에서 잘해 오던 일입니다.

지원하는 쪽이나 신청하는 쪽이나 사회복지사 세상이라서 사회복지사가 유리하다는 점을 빼면, 사회복지사라서 잘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²⁾

1) 사회복지사 정체성이 약해질 때면 차별화니 고유 영역이니 하며 전문성의 상징처럼 내세우는 간판 이론이나 구실이 있습니다. 생태체계 이론, 기획서 쓰기, 사례관리 따위가 그러합니다. 이로써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다.' 할 수 있을까요?

2) 더구나 사회복지사가 기획서 써서 돈 받아다 돕는 방식은 폐단이 큼니다.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3) 사례관리

이제는 사례관리를 내세워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인 양합니다.

그러나 사례관리는 이것저것 함께 알아보고 궁리하고 주선하고 거들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라서 더 잘하는 일도 아닙니다.

4) 상담 기술

더러는 상담 기술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공으로 상담 기술을 갖추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복지사에게 별다른 상담 기술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람에게 기법을 쓴다는 게 불편합니다. 자기는 문제를 초월한 사람인 양, 득도한 사람인 양하는 꼴이 거슬립니다. 반복 요약 해석 반영 직면 명료화 따위의 기법이라 하는 그 상투적 말씨가 메스껍습니다. 잔피 부리는 것 같아 역겹습니다. 애 취급하는 것 같고 사람 다루는 것 같아 불쾌합니다. 어떤 질문은 유치하다 못해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점수에 돌아나는 꼴이라니...

자존심 강한 사람이나 산전수전 겪어 온 사람에게 사회사업가의 어쭙잖은 기법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¹⁾ 특별히 상담 훈련을 받고 상담 실무를 하는 상담 전문가라면 몰라도, 보통의 사회사업 교육을 받고 일반 복지기관에서 일선 실무자로 일하는 보통의 사회사업가라면 상담 기법을 쓴다는 게 그야말로 어설픈게 재주 부리는 꼴이기 십상일 겁니다. 참조 : 53쪽 '상담치료와 사회사업'

1) 영화 「굿 윌 헌팅」에 나오는 상담 장면, 그 장면에서 권위 있다는 상담·치료 전문가들의 기법이 얼마나 무색합니까? 사람 다루듯, 애 취급하듯, 재주 부리다 망신당하는 꼴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4. 알아야 잘 도울 수 있을까요?

1) 복지 당사자

당사자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얼마나 알아야 잘 도울 수 있을까요?

알기 나름이겠지요. 다만, 사회사업은 대개

몰라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잘됩니다.

알아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야 잘됩니다.

알아서 유익할 수도 있지만

몰라서 유익하기도 하니 곧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 때문입니다.¹⁾

1) 필요하거나 유용한 지식 정보가 있습니다. 문헌이나 지역조사나 제삼자를 통해 얻은 지식 정보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용할 때는 선입견과 일반화를 경계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환경에 따라 다르고 때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지역사회도 다 같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지역사회라도 ‘항상 그대로’는 아닙니다. 변해 갑니다. 어떤 사회사업가가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에 대한 부정적 정보라면 아예 알려고 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모르는 체하는 편이 나을지 모릅니다. 긍정적 정보라도 때가 되기 전에 발설하면 ‘어떻게 알았지?’ 하며 언짢아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나를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을 조사하여 알고 만난다는 사실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을 지혜라 할지 모르나 사회사업에서는 꺼림칙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대해 조사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 나를 도와 주겠다고 내게 개입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당사자에 대해 아는 것, 지식 정보 나름이겠지만, 뭘 얼마나 알아야 좋은지, 알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습니다. 몰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2) 사회사업 이론

얼마나 알아야 사회사업할 수 있을까요?¹⁾

많이 알수록 사회사업 잘할까요? 글썄요. 많이 알아서 핵심을 놓치거나 역량을 지나치게 분산시키는 사람, 많이 배우면 위로 올라가 버리거나 너무 바쁘거나 몸을 사리거나 약아지는 사람, 배울수록 오히려 사람을 대상화하고 소외시키는 사람이 있으니...

알아야 잘 도울 수 있을까요? 지식 나름이지만, 사회사업 교과서나 1급 수험서 지식이라면 글썄요, 잘 모르겠습니다.²⁾

알아야 잘 도울 수 있을까요?

글썄요. 사회사업에 관한 한 누가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³⁾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몰라도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잘됩니다.

알아도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해야 잘됩니다.

1) 꼭 무엇을 배우고 나서 시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참조 : 복지요결 대학생 편 '실무 준비'

2) 그렇게 많이 알아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사업에 대하여는 차라리 素人소인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3) 사회사업에 관한 한 누군들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러합니다. 아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양이 다르다 해도 대개 오십보백보입니다. 질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어떤 지식이 더 좋은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사회사업 지식에 관한 한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사업에서 전공이나 학위나 학벌 따위로 판단하여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춘다거나 혹 누군가를 알보거나 배제한다면 이는 온당치 않습니다.

알아야 사회사업할 수 있고 알아야 잘 도울 수 있다면 사회복지사들은...

5. 전문가라는 이름

남들에게 인정이나 대우를 받기 위한 이름이 아닙니다.¹⁾

자신을 단속하는 데 쓰는 이름입니다. 자신을 살펴 부족함을 알게 하는 잣대입니다. 잘하라는 채찍입니다. 합당한 실력과 효용을 보이려는 말입니다.

다른 데 쓰려면 신중해야 합니다.

사회사업 현장에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인 사이에서는 돕는 일을 사회복지사 아니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게 할 수 있습니다.²⁾

1) 전문가 인정 여부가 사회사업 실질에 영향을 줄까요? 전문가로 인정해 주지 않아서 사회사업 잘할 수 없다면 그 이름이 중요하겠으나 과연 그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남에게 인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구차합니다. 다만 실질을 갖추는 데 힘 쓸 일입니다.

2)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라 하니 사회복지사에게 떠맡기고 내맡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나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대단한 자격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사회복지사 때문에 사회사업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꾸며 놓고 전문가 행세 하는 사회복지사 앞에 그만큼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소진과 타성

어떻게 하면 소진되지 않고, 타성에 젖지도 않고, 사회사업 오래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의 본질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함과 같아 보입니다.

이는 곧 ‘사람은 무엇을 좇아 또는 무엇에 의해 움직일까?’ 하는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1) 사람은 뜻으로 삽니다. 뜻을 좇아 움직입니다.

사회사업하는 뜻이 뚜렷하고 그 뜻대로 잘하고 있음을 확인 확신할 수 있다면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고 사회사업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2)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해야 하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사회사업에서 그 사랑은

소진되지 않고 사회사업하게 하는 동력, 타성에 젖지 않고 사회사업하게 하는 자극입니다.

3) 사람은 재미로 삽니다.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곧 시들해질 겁니다. 오래 하지 못할 겁니다. 얼마간이라도 열심히 하지는 않을 겁니다.

1. 뜻

사회사업하는 뜻이 뚜렷해야 합니다. 뜻있게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사업 왜 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사회사업 동기 이상 철학 그 뜻이 분명하고 그 동기 이상 철학대로 뜻있게 잘하고 있음을 확인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진되지 않을 저력도 타성에 쫓지 않을 열정도 이런 확인과 확신에서 나옵니다.

사회사업하는 뜻이 분명 확고하고, 뜻있게 잘하고 있음을 확인 확신할 수 있다면, 힘들고 더디어도, 실패하고 넘어져도, 꾀꿉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사업 동기 이상 철학이 없다면,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면, 어디로 가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뜻있게 잘하고 있음을 확신은커녕 확인조차 할 수 없다면, 그러고도 어찌 소진되거나 타성에 쫓지 않겠습니까?

2. 동력과 자극¹⁾

1) 동료 복지인

사회사업 뜻있게 하려고 애쓰는 동료, 근본을 좇아 행하는 사회사업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경험 지식 정보, 지지와 격려, 자극을 주고받아야 합니다.²⁾

2) 당사자

당사자들과의 인간적 교제가 있으면 잘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돕고 싶은 선한 근심과 고뇌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당사자들과 인간적 교제가 있으면 그들이 사회사업가를 도와줍니다. 잘하면 칭찬 인정해 주고 힘들어하면 위로 격려해 줍니다. 종종 대접도 하고 선물도 줍니다. 보람과 감동,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어찌 포기하거나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들과 정이 통하는 인간적 관계가 있어야 사회사업 촉촉하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1) 사회사업가가 적절한 투입이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소진됩니다. 열심히 하면 더 빨리 소진됩니다. 둘째, 대충 하게 됩니다. 대충 하면 소진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타성에 젖는 겁니다.

소진되지 않으려면 동력을 공급해야 하고 타성에 젖지 않으려면 자극이 있어야 하니, 동력과 자극의 원천에 연결해야 합니다. 좋은 사회사업 동료들과의 네트워크, 복지 당사자들과의 인간적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네트워크의 생명은 양방향성, 상호 소통입니다. 동료들과의 네트워크에서 유익을 얻는 최선의 방법은, 동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줌으로써 소중한 존재 책임 있는 존재가 됩니다. 줌으로써 자신을 채우고 다듬게 됩니다. 줌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트워크의 진수입니다.

3. 재미

1) 배우는 재미

경험자 특히 고수에게 직접 듣고 좋은 동료와 함께 절차탁마하면서 배우는 재미가 으뜸입니다.

사람도 얻고 지식도 얻는 방법입니다. 사회복지계에 정붙이고 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회사업은 방법지가 중요한데 사회사업 고급 방법지는 대개 암묵지로만 존재합니다. 개인 서랍이나 컴퓨터나 머릿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형식지가 적고 그나마 부실합니다. 그야말로 형식적입니다. 사회사업가들이 글로써 정리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데 서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까지 글로 다 옮길 시간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급 방법지가 있는 경험자, 고수들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배우고 개선 개발하고 성장 발전하는 재미가 없다면 비록 일이 편하고 대우가 좋아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배움과 실천에 진보가 없는데 직위나 보수가 오르면 오히려 스스로 부끄럽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겁니다.

2) 배움을 나누는 재미

동료들과 공유하고, 좋은 후배를 얻어 가르치고, 책을 만들어 나눕니다. 이와 같이 나눔으로써 얻는 유익이 사회사업 재미있게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참조 : 복지요결 사회사업 기록 편 '책 만들기'

지식을 나눔으로써 얻는 유익

①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지식이 있어도 공유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공유하는 사람이라야 알려지고 인정받고 쓰이게 됩니다.

②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은 지식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유용한 지식을 곧잘 찾아냅니다. 자기만 알고 묻어 두는 지식은 썩어 없어지거나 효용이 곧 소멸되기 쉽지만, 나눠 준 지식은 더 오래 기억하고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할수록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정교해집니다. 공유하면 남들이 보태거나 다듬어 주고 스스로 다듬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일하는 재미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방식으로 하면 사회사업이 수월하고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빛나게 됩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모습 그 이야기에 감동하여 '그래, 이래야 사람이지!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하게 됩니다.

'그래, 이래야 사람이지!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하는 감동이야말로 사회사업하는 재미입니다. 이 감동이 재미가 있어야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고 사회사업할 수 있습니다.

4. 여유

- 1) 일을 만들기 때문에 일이 생깁니다. 너무 많은 일을 벌이지 맙시다. 너무 버거운 일을 만들지 맙시다.
- 2) 시키는 일을 하면 그제야 준비하느라 바쁘고, 제 역량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허덕거리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준비하고 제안하여 능동적으로 일을 맡읍시다.
- 3) 당사자나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자신이 해 주려 하니 바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 4) 집중이 필요한 문서 작업을 근무시간에 하니 바쁘기만 하고 지지부진합니다. 집중이 필요한 작업은 남들이 출근하기 전 조용한 시간에 해 봅시다. 교통 혼잡 시간대를 피해 출퇴근합니다.
- 5) 공모사업에 관련된 업무 하느라 바쁩니다. 공모사업 유혹을 단호히 끊어 버립시다.
- 6) 한글의 단축키와 개요 스타일 차례, 엑셀의 단축키와 함수 필터링 피벗 자동계산 스크립트와 데이터 들여오기 내보내기 같은 기능을 몰라서 문서 작업에 시간 낭비가 심합니다. 이런 기능을 숙달합니다.
- 7) 거절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니 바쁩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일을 취사선택합니다.
- 8) 명예나 지위 따위를 얻으려는|지키려는 마음이 사람을 바쁘게 만듭니다. 이름 없고 지위 없음을 낙으로 여깁시다. 말단 평 사회사업가로 어려운 사람 가까이에 있음이 복인 줄 압시다.

이같이 하면 여유가 생길 겁니다.

5. 복지인생 즐겁게

1)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합니다.

근본에 부합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되 준비되었을 때에 합니다. 강 의도 나누고 싶고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제안하거나 수락합니다. 청탁을 받고 준비하면 곧 채무나 명예 같이 되어 평안을 잃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2)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마땅한 바를 좇되,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기를 꺼립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처지가 달라질 수도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한계를 인정하고 지체의식으로써 일합니다.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 한 시점에서, 많은 분야 가운데 한 분야에서, 특정 분야 일부 업무에서, 특정 업무의 다양한 방법 가운데 몇 가지나 한두 가지로써, 그런 일을 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때와 자리와 역량의 한계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을 할 뿐이라는 생각으로 일합니다.

4) 이기적으로!

‘남을 이롭게 함이 실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회사업이 그러합니다. 사회사업가는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자신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고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이든 제게도 유익하도록 구상합니다. 그 일을 통해 저도 즐기고 누리고 배우고 성장하려 합니다.

5) 좋은 분들과 함께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정보, 지지와 격려, 인정과 비판,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근본을 좇아 행하고 근본으로써 성찰하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복지 당사자들과 인간적 사귀어 있습니다.

6) 자연을 누립니다. 등산, 여행을 즐깁니다. 산책을 즐깁니다. 자연과 벗하며 삽니다.

7) 방법론적 사고방식으로 일합니다.

‘없는 걸 어떡해, 안 되는 걸 어떡해, 있는 자원 선용하고 되는 일부터 잘하자.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려놓거나 돌아가자.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자.’ 이런 마음으로 일합니다.

8) ‘사회사업, 낙을 누리며 기쁘게 행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는 하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 소유와 소비를 줄입니다. 적게 벌고 적게 씁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합니다. 삶을 단순화합니다.

10) 평가와 보상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명예와 지위, 인정과 칭찬을 얻으려는|지키려는 마음이 사람을 바쁘게 만듭니다. 이런 건 남보다 더 바쁘게 뛰어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11) 쉬엄쉬엄 합니다. 사회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 둘 일이 아닙니다. 복지인생 길게 보고 천천히, 쉬엄쉬엄 합니다.

월급 받는 사회사업가라면 더러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선택과 한계

할 일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 들면 기력이 소진합니다.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
도 저도 잘하기 어렵습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필요하고 저 일은 필요 없다
거나 이 사람은 중요하고 저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할 게 아닙니다.
‘이건 이런 점에서 필요하고 저건 저런 점에서 중요한데, 다 할 수는 없
으니 어느 쪽을 선택할까? 어느 쪽을 우선할까?’ 할 일입니다.

급한 일, 중요한 일,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마땅
한 일일 수 있고, 마땅한 일이 종종 급하거나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
다고 급하거나 중요한가를 기준으로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급하거나
중요한 일인가?’와 ‘내가 지금 그 일을 함이 마땅한가?’는 다른 문제입
니다. 급하거나 중요하다고 반드시 내가 지금 그 일을 해야 하는 건 아
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익한 일이라서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거나
절실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잘할 수 있고 유익하고 중요하고 절실한
일이지만 제자리에 충실하기 위해, 핵심에 집중하기 위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¹⁾

1) 매주 독거노인을 찾아가 청소하고 씻기고 말벗하고 심부름하고 외출 동
행하고 반찬 만들어 드린다면 잘한다 할까요? 복지부장관이라면? 지역아동
센터 사회사업가라면?

어떤 사람의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 애쓰는 사
회사업가, 정이 많은 사람이라 할까요? 다른 문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외
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냉정한 사람이라 할까요?

1. 근본과 현실

사회사업 근본과 현실을 헤아려 일을 취사선택해야 합니다.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따위의 근본에 비추어 마땅히 할 일인지 살펴야 합니다.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 가용 자원 따위의 현실에 비추어 잘할 수 있는 일인지 헤아려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기회비용도 있으니 곧 다른 일을 못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유익하고 중요하고 절실한 일이라도, 사회사업 근본에 비추어 마땅하지 않거나 현실을 헤아려 잘할 수 없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마다 제자리에 충실할 때 사람살이 바탕이 튼실해지고 사람살이 바탕이 튼실해야 사회복지도 든든히 서게 되는 법입니다.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가 자리, 사회사업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¹⁾

1) 사회복지와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에 사회사업가가 경찰이나 청소부나 농부나 시인보다 더 기여한다 할 수 있을까요? 동네 복지에 구멍가게 커피숍 호프집보다 복지관이 더 기여한다 할 수 있을까요? 약자의 복지에는 그렇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직업이든 대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필요를 채워 줌으로써 자기도 먹고사는, 남을 살림으로써 자기가 살고 남을 살리면서 자기도 사는, '살림살이'입니다. 저마다 그 하는 일로써 사회복지를 이루고 약자의 복지에 기여하는 겁니다.

사회사업가는 무엇으로 사회복지에 기여할까요? 사회사업가 노트, 사회사업 본분이 무엇일까요?

2. 사회사업 본분

1) 인복

사람의 복 가운데 사회사업 핵심 소관은 선린의 복, ‘인복’입니다. 사회사업은 사람 관계를 주선하고 좋은 이웃이게 거드는 일입니다.

2) 공생성

사회의 속성 가운데 사회사업 핵심 소관은 ‘공생성’입니다. 사회사업은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3) 사회적 복지

사회복지 가운데 사회사업 핵심 소관은 ‘사회적 복지’입니다. 사회 속에 흐르는 복지입니다. 사회사업은 사회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참조 : 복지요결 사회사업 개념 편 ‘사회적 복지와 비사회적 복지’

4) 사회적 사업

복지사업 가운데 사회사업 핵심 소관은 사회적으로 복지를 이루는 ‘사회적 사업’입니다. 사회사업은 사회 속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려서 복지를 이루는 일입니다.

참조 : 복지요결 사회사업 개념 편 ‘사회 관점 사회사업’, ‘사회사업 본질’

3. 복지정책과 사회사업

복지정책을 주창하며 운동하는 사람 가운데 더러는 이렇게 중요한 일에 사회사업가들이 나서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이해합니다.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¹⁾ 사회사업가라고 복지정책을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정책은 대개 정책 전문가들끼리도 갑론을박하기 일쑤 아닙니까?

일반 사회사업가로서는 여러 정책 대안들을 분석하여 비교 평가함은 물론이고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칫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화뇌동하는 꼴 되기 쉽습니다. 그럼직한 지식이나 논리를 갖추어 정책운동을 주도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자칫 선무당 사람 잡는 꼴 되기 쉽습니다.²⁾

참조 : 84쪽 '무임승차'

1) 사회사업가의 처지나 기관의 상황 같은 현장 사정을 생각하면 과연 일반 사회사업가가 그럴 만한 여력이 있을지, 겸하여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얼마쯤 여력이 있는 사회사업가도 있겠고 또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정책운동이 필요한 때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2) 혁명운동과 사회사업

세상의 온갖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억압 착취 차별 폭력을 막고 전쟁을 끝내는 일, 정치혁명, 사회혁명, 경제혁명, 환경혁명... 사회사업가가 이 모든 일에 나서야 할까요? 어떤 일부터 해야 할까요? 어떤 혁명 노선을 따라야 할까요? 혁명 뒤에 변질 부패 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웃 관계와 인정을 살리는 일은 혁명이 아닐까요? 무엇이 더 근본적인 혁명 일까요? 진정한 혁명은 무엇일까요? 어설픈 의무감, 어쭙잖은 지식, 나서자니 확신도 자신도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알아듣게 설명하고 그럴듯한 계획을 밝혀 앞장서면 혹 따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사회사업 잘함으로써 세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근본책입니까?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리는 일이 근본책입니다.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없음이 온갖 문제의 근원이고,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야말로 온갖 복지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아두고 달리 어떻게 해보려는 건 대개 말단에서 비롯하는 일입니다. 말단이나 다스리는 방안이기 쉽습니다.

복지정책이 그러합니다.

복지정책은 애당초 근본 태생이 아닙니다. 지금도 대개 빵 조각 따위로 사회 문제를 뒤치다꺼리하며 그 본질을 호도하는 미봉 땀질에 불과합니다. 여기를 꺾매면 저기가 터지고 이곳을 때우면 저곳이 새기 일쑤입니다.

미봉 땀질이라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필요 없다거나 무익하다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도 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복지정책의 효용은 거기까지입니다.

복지정책은 대개 말단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생기니 태생 자체가 말단입니다. 앞으로도 말단에 떠밀려 다니거나 말단을 팔아먹고 살아가다가 끝내 ‘말단 치다꺼리’를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회사업이야말로 근본책입니다.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리는 사회사업은 근본에서 비롯하는 일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막고 복지의 바탕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참조 : 83쪽 ‘복지정책과 사회사업’

4. 상담 치료와 사회사업

상담 치료, 그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얼마나 배워야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학부든 대학원이든 써먹을 수 있게 배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과서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이렇게 배워서 하나라도 써먹을 수 있겠나 싶고 누가 이걸 다 가르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상담 치료 기술, 모든 사회사업가에게 필요한 건 아니니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대다수 사회사업가의 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배우기도 어렵고 숙달하기까지 비용도 너무 많이 듭니다. 배워도 써먹기 어렵습니다.

맡은 일이 상담 치료 사업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오래 그 업무를 맡을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배우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사회사업에는 그런 기술 없어도 잘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잘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¹⁾

참조 : 36쪽 '상담기술'

1) 치료라니... 그 필요성이나 효용을 부정할 수 없지만 사회사업가로서는 썩 내키지 않습니다. 치료사와 환자 같이 되지 않을까 관계가 불평등하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위에 서지 않을까 전문가랍시고 행세하지 않을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환자처럼 대하지 않을까 당사자가 환자 노릇 하지 않을까, 이래저래 조심스럽습니다.

치료라 하니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처럼 되어 버릴 것 같아 조심스럽고, 당사자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고, 치료받았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 하고 싶습니다. 환자로 보고 문제를 들춰내어 증상을 치료하려 듣기보다, 그냥 사람으로 보고 강점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고 싶습니다. 치료 기법을 쓰기보다 그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방식으로 돕고 싶습니다.

5. 사회사업가의 눈

1) 무공해식품과 공생

“무공해식품이라는 걸 잔뜩 사다 놓고 왜 이렇게 갑자기 괴로워지는지 화가 또 난다.¹⁾”

이웃끼리 마을 사람끼리 서로 사고팔고 주고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가까운 이웃은 다 버리고 먼 데서 깨끗한 음식만 먹겠다고 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일까? 먹는 것만 깨끗하게 먹는다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일까? - 중략 -

차라리 죽을 때 죽더라도 이웃집에서, 가까운 장터에서 쌀도 사고 밀가루도 사고 국수도 사는 게 옳지 않을까? 마음 편한 게 위장 편한 것보다 더 소중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다.”²⁾

권정생 산문집 「우리들의 하느님」 녹색평론사, 1997년, 90~92쪽에서 요약 발췌

1) 어느 날 시내 유기농 매장에서 현미가루 한 봉지, 들기름 한 병, 쌀 한 봉지 사 오고는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 같이 괴로워했습니다.

유해식품 먹지 않겠다고 마을 구멍가게에 발길을 끊고, 가까운 장터 쌀장사 아주머니에게도 가지 않고, 국수가게에도 가지 않고, 동네 정미소에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이처럼 이웃에서 사 먹는 편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 인정에 매여 가깝게는 우리 농촌과 농민을 죽이고 멀게는 우리 자신과 이웃을 죽이는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권 선생님이 무공해 식품, 건강, 농업, 농산물 유통보다 공생을 더 중시했다는 점입니다.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가답게 사회사업 가치로써 분별해야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2) 태평농법과 공생

태평농법 책 - ‘모든 것은 흙 속에 있다’와 ‘이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농사꾼’을 읽고 감명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평농법은 비료 농약 쓰지 않고 경운 제초 안 하고 건답에 직파하는 농법입니다. 수만 평 논농사가 일 년에 보름 정도의 일거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태평한 농사법입니다. 농부뿐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과 땅까지 공생하여 생태가 태평한 농사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태평농법에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콤바인 하나만 있으면 수십 수백만 평의 논농사도 혼자 지을 수 있는 그 태평성과 경제성에 함정이 있다. 자본이 농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태평농법으로 농사할 경우 소농들은 몰락할 것이다. 영국 산업혁명기의 인클로저 운동의 한국판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자연공생에 좋은 농법이라도 인간끼리의 공생성이 희생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람은 내쫓기고 자본만 독점 확보하는 들판, 그 들판의 생태가 되살아난들 그게 우리 사람의 지속적 공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¹⁾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 진보다」 천규석, 실천문화사, 1999년. 147~156쪽

1) 사람 사이 공생을 생각하는 천규석 선생님 글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 가치를 기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회복지 운동

1. 운동 영역

1) 한 축은 복지 제도 개선, 사회복지사 보수와 근무 조건 개선, 기관 운영의 민주화, 인권 보호 활동을 주로 합니다. 정책 운동, 노동 운동, 인권 운동 성격이 강합니다.

2) 다른 한 축은 사회사업가의 실질을 증시하는 운동입니다. 사회사업 가치와 윤리, 이상과 철학, 서비스 효용과 효율을 강조합니다. 사회사업 인재를 찾아 키우고 좋은 성품과 실력을 갖추자 합니다. 사회사업 세속화를 경계합니다.

제도 개선을 주창하는 사람도 자기 변화 필요성을 모르지 않고, 자기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도 제도가 중요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운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뜻에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 수고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노력으로 복지 제도가 발전했고, 사회복지사 처우도 좋아졌습니다. 민주적 시설 운영, 재정 투명성, 인권 차원에서도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내적 실질 운동, 자기 개혁 운동에 집중할 뿐입니다.

2. 사회사업 운동의 3대 버리

경영자라면 ①가치와 비전 ②생산과 유통 ③인재, 이 세 가지를 버리로 삼아 경영할 겁니다.

가치와 비전으로써 직원을 동기화하고, 생산과 유통 체계를 효율화하고, 인재를 구하여 즐겁게 일하며 성장 발전하게 하면 좋은 기업이 되고 사업도 잘될 겁니다.¹⁾

사회사업 운동도 그렇습니다. 사회사업 근본으로써 동기화하고, 서비스 체계를 효율화하고, 인재를 개발하여 즐겁게 일하며 성장 발전하게 돕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사업 운동의 버리입니다.²⁾

1) 장수라면 ①명분과 목표 ②전략과 전술 ③병참과 병사, 이 세 가지를 버리로 삼아 지휘할 겁니다. 명분과 목표를 세워 동기화하고, 전략 전술로써 작전을 세우고, 병참과 병사를 확보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겁니다.

2) 1990년대 초·중반에는 주로 생산과 유통 체계 곧 서비스 기반 내지 운영 체계의 효율화에 관심을 기울여서, 국민복지종합정보시스템, 사회사업 프랜차이즈, 중개유통, 가상 복지관, 현장 중심 근무, 정보 기술 활용 따위에 주력했습니다. 참조 : 복지경영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인재 양성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전국사회복지대학 생캠프, 동아리, 복지순례, 실무합숙훈련, 학습여행, 백두대간 겨울산행, 시골사회사업, 실습생 합동연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카데미복지관, 사회복지학 사전 서비스, 학습권 운동을 만들거나 제안했습니다. ‘학창시절을 즐겁게, 복지인생을 즐겁게’라는 정서적 목표를 강조하고 우정과 낭만, 심과 낙을 누리게 힘썼습니다. 인터넷 카페와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 지지와 격려,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함께 성장 발전하도록 관계 소통을 도왔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근본 곧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을 밝히고 확산하는데 힘썼습니다. 복지요결 복지야성 복지소학을 파일로 공유하고 책으로 나누고 순회 강독하며 현장 사회사업가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3. 사회복지 운동 토론

첫째, 사람마다 생각이나 처지가 다르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로써 사회복지를 위하고, 어떤 분은 순수연구로써 사회복지를 위합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와 인정을 중히 여기고, 어떤 분은 정의와 원칙을 중히 여깁니다. 어떤 이는 과정을 중시하고 어떤 이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썩은 곳은 도려내는 편이 최선이라 하는 이도 있고, 긍정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을 약화하는 편이 효과적이라 하는 이도 있습니다.

나서지 않는 사람도,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중인지, 자신이 없어 망설이는 중인지 모릅니다. 나서지 못할 사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넓게 하여 두루 헤아려 주기 바랍니다. 논쟁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 바람입니다.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중요한 운동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참조 : 84쪽 '무임승차'

둘째, 사회복지 운동의 이상과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원 버리도 막아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버려지는 1000원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10년 뒤에 버려질 10000원에 대해서도 분노하라는 겁니다.¹⁾

1) 만약 사회복지계 최고경영자라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10년 뒤의 사회복지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복지 운동의 이상과 방법을 세워 주기를 기대한 겁니다.

사회사업 현장에서는 1000원을 까먹고 있는데, 부정한 듯 보이는 10원을 깨끗하게 잘 쓰게 따지고 감시하는 일이 우선입니까? 1000원을 잘 쓸 수 있는

예산 대부분을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로 써 버릴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소홀히 하는 복지관 사회사업을 개선해야 합니다.

사람을 온상 속 화초처럼 돌보는, 시설 안에서만 정성으로 친절하게 열심히 돌보는, 그래서 평생 무기수처럼 애완동물처럼 수용 보호하는 시설 사회사업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교육을 개혁해야 합니다. 1급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제도와 학부제, 학생 수에 비해 교수가 부족하고 전공 과목 수가 부족한 현실, 이런 게 미래 사회복지를 도둑질하고 있으니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운동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진짜 큰 도둑을 잡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 바라는 겁니다.

목표와 방법이 핵심에서 벗어난 채 열심히만 하는 정직한 사회복지사가 큰 도둑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미래 사회복지를 훔쳐 가는 사회복지 교육 여건이 진짜 큰 도둑 아닐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2001. 3. 4 ~

2001년 2월 6일부터 한 달쯤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서 사회복지운동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마지막 토론 글입니다.

방법이 있는데도 10원 비리를 고치는 일이 우선입니까?

그나마 그 10원 비리를 고치자고 내놓는 대안이라는 게 비현실적이거나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남에게만 명예를 지우는 식이라면, 식상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문제의식이나 고민을 시위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동, 그런 운동은 정말이지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회복지 운동가들이 주로 다루어 온 사안은 사회복지사 근무조건, 예산과 인력 문제, 재정 비리와 인권 문제, 시설 부패구조와 기관 운영 비민주성, 노동조합 문제입니다. 이런 사안이 사회복지운동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잘못되었거나 부패한 데서 오는 손실이 10원이라면, 우리 복지인들이 핵심을 잘못 짚은 데서 오는 손실은 1000원쯤 됩니다.

행복1)

1. 하필 행복

하필 행복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복지를 이루고 사회가 사회다워지길 바랄 뿐입니다.²⁾

1) 사회사업을 넘어서는 주제입니다. 행복을 논함이 사회사업가로서는 무모하거나 부질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회사업 안에서 행복에 대해 생각이 나아간 만큼 정리했습니다.

2) 그로써 행복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행복해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좇아 행할 따름입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좇아 행하면 당사자나 둘레 사람이 행복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답게 복지를 이루고 누릴 때 행복해합니다.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는 곳에서 행복해합니다. 다만 이것이 사회사업 동기나 목표는 아닙니다. 평가 기준도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사회사업 바깥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좇아 살아갈 따름입니다. 이로 인해 때로 고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분개하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오해 비난 질시 핍박 가난 외로움에 시달리고, 끝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다만 뜻을 좇아 살아갈 일입니다.

뜻을 좇아 살다 보면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복해도 좋고 불행해도 좋습니다. 다만 뜻을 좇아 행하되,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할 뿐입니다.

사회사업에서나 개인의 삶에서나 행복은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하며 누릴 뿐입니다.

참조 : 복지소학 길언 편 ‘養志福祉’, 동기 편

2.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과연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불행해지기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사업가로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한다면, ‘마음을 잘못 먹어서 불행한 겁니다. 마음만 고쳐먹으면 됩니다.’ 이런 말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¹⁾²⁾

1) 역경에 대하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함은 어떻습니까?

절망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는 말이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며 역경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역경이 지나가기까지 참고 견딜 만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부적절한 말일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대상자라면 대개 그럴 겁니다. 지금 필요한 도움을 주거나 고통을 함께하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저 참고 견디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사회사업 대상자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사업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생태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안에 있다 할 수도 없고 밖에 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안과 밖이 상관하여 이룹니다. 안과 밖 어느 쪽도 그 자체만으로는 행·불행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밖이 아무리 나빠도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 잘못, 내 무능, 내 언행, 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이웃 동료가 고통을 당하고 기관이 손해를 보는데 그래도 마음먹기에 따라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이와 같습니다.

3. 행복하게 해 주겠다?

1) 그럴 수 있을까요?

행복할 조건을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유지한다고 해도 항상 행복을 느끼거나 의식하며 사는 건 아닙니다.

대상자를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건 바람을 잡으려 함과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대상자를 행복하게 해 주려는 생각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행복하기를 바라거나 행복하게 해 주려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사회 사업 목표로 삼을 순 없습니다.

2) 행복하게 해 주겠다 하면

① 복지사업에서는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사람이 자칫 우월해지기 쉽습니다. 대상자를 밑으로 대하는 것 같은 형세이기 쉽습니다. 기우는 관계이기 쉽습니다. 대상자의 격이 떨어져 보이기 쉽습니다.

② 행복하게 해 주려는 마음에서 복지사업 대상자로 만들곤 합니다. 조금만 불행해 보여도 가만두질 못하고 생사람 잡아 대상자 만들기도 합니다.

더러는 함부로 문제라 규정하고 전문적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듭니다. 사랑 후원 봉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무례를 범합니다.

③ 더러는 대상자가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안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바심합니다. 대상자 만족도에 민감하다 못해 종노릇하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유익한지 마땅한지 헤아리지 않고 그저 대상자가 만족하고 행복하면 좋다는 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칫 ‘행복한 OO’ 같은 우민복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4. 가치와 경쟁

1) 행복과 가치

행복을 위해서 가치를 생각하고 가치를 좇아 행하고 가치로써 성찰하고 가치 때문에 고뇌하며 불행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까요?¹⁾

2) 행복과 경쟁

남보다 낮거나 적어도 남보다 못하지는 않아야 행복할 수 있다면 행복은 결국 남의 불행을 딛고 서는 게 됩니다.

상대적 빈곤감까지 해결하려는 행복 추구는 끝없는 경쟁을 초래할 겁니다.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여 기어이 다른 사람을 불행에 떨어지게 하고야 말 겁니다.

경쟁에는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이 사람을 이기게 돕는다면 지게 되는 저 사람은 어찌합니까?

경쟁에서 비켜서지 않으면,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복지사업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²⁾

사회사업은 경쟁을 돕는 일이 아니라 공생을 돕는 일입니다. 경쟁을 돕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사회사업가가 나설 일은 아닙니다.

사회사업가는 공생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1)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이나 자연이나 심지어 신까지 이 용하려 들지 않을까요? 사랑도 수단화하지 않을까요?

2) 이 아이가 꼴찌를 탈출하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아이는 어찌할까요? 이 ‘아이’ 등수가 오르면 그만큼 떨어질 다른 ‘아이들’은 어찌할까요?

자원봉사

1. 님비형 자원봉사

와서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당신 마당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가서 도와줄게요. 후원해 줄게요. 내 마당엔 들어오지 말아요.

한쪽은 후원 봉사를 받고 그 마당을 보호해 줍니다. 다른 쪽은 후원 봉사 내놓고 제 마당을 지킵니다. 후원 봉사로 님비를 세탁 호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후원 봉사가 나눔 도움의 본디 모습은 아닙니다.

나눔 도움은 가정 동네 일터에서의 평범한 일상이었고 자연스러운 사람살이였습니다. 제 마당 제 삶터에서의 관계와 소통이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누고 돕습니다.

문제는 복지사업입니다. 제 마당 바깥에 어려운 사람을 따로 두고 돕는 님비형 후원 봉사가 성행합니다. 님비형 후원 봉사 배분 배치하는 사업이 큰 시장을 이룹니다.

이런 후원 봉사는 사람과 사회를 해치기 쉽습니다.

1) 인간관계 왜곡

보통의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봉사자 대 대상자, 후원자 대 대상자, 이렇게 특별하거나 이상한 관계로 만듭니다.

봉사자 대 대상자 관계에서는 대상자 쪽의 격이 떨어져 보이기 쉽습니다. 봉사자는 천사처럼 보이는데 대상자는 구차해 보입니다. 흔히 봉사자의 명예와 대상자의 불명예가 비례합니다.

받는 사람은 봉사거리나 일감 따위로 대상화하기 쉽고, 주는 사람은 자원화하기 쉽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어 버리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자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¹⁾

2) 악성 소외 초래

소외된 사람을 위한 봉사가 자칫 그 사람을 봉사거리로 대상화하여 자신의 삶에서조차 소외되는 악성 소외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당사자가 하게 부탁하지 않고,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게 하지 않고, 당사자가 선택 통제하게 하지 않고, 사회사업가나 봉사자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봉사, 이는 사람을 소외시키는 일입니다.²⁾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제구실이나 주인 노릇은커녕 선택 통제조차 하지 못하는 현상, 봉사자의 선행에 종속되어 자주성을 잃어버리는 현상, 이것이 자원봉사에 의한 소외입니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가 자칫 소외된 사람에게 더 비참한 인격적 소외를 강요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봉사에서 소외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1) 관계를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환경 교통 봉사활동이 그렇고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돕는 봉사활동도 이런 문제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대상자를 직접 돕는 ‘대인봉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 당사자를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격도 성도도 생활도 없는 것처럼 다루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당사자를 앞에 두고 마치 당사자가 거기 없는 것처럼 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지역사회 사막화

메말라 가는 사회에서 후원 봉사 끌어내니 사회가 더욱 메말라 갑니다. 제 마당 제 삶터에서의 나눔 도움이 사라져 갑니다.

지역사회에 두루 스미어 샘솟는 복지 우물과 지역사회를 굽이돌아 흐르는 복지 시내를 버리고 복지시설, 복지사업, 후원 봉사라는 복지 저수지, 복지 수도, 복지 생수로써 도우니 복지 우물이 마르고 복지 시내가 죽어 갑니다.

후원 봉사 성하고 복지사업 번창할수록 지역사회 복지 바탕이 메말라 갑니다. 지역사회라는 땅에서 양분을 빨아들여 바로 그 땅을 불모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땅이야 죽든 말든 지금 이 복지사업만 잘 되면 좋다는 듯... 지역사회를 사막화하는 겁니다.

이런 후원 봉사라도 얻는 게 많기는 합니다.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맞들이면 복지 바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체 의식과 역량,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의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해치기 쉽습니다.

후원 봉사 끌어다 쓰기, 쉽고 달콤한 유혹입니다.

피 묻은 칼 얼음을 핥는 북극 늑대는 혀가 상하는 줄 모릅니다. 제 피를 먹게 되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 밖에서 특별히 시간 내고 돈 들여 행하는 님비형 후원 봉사... 사회사업가가 주선해도 될까요?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살리며 사는 '임피형 나눔 도움'을 주선함이 좋겠습니다. 물질이든 재능이든 지역사회 복지 자연력을 저마다 제자리에서 직접 살려 쓰게 주선하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살려 쓰는 자연력이라야 부작용 없이 오래 갑니다.

2. 자원봉사 거부 선언

누구나 혼자 살지 못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보통은 도와주었다고 봉사자라 하지 않고 도움 받았다고 대상자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웃이고 친척이고 친구이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회사업가가 주선하는 관계는 ‘봉사자 대 대상자’ 관계이기 십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돕고자 하는 마음이나 돕는 행위는 귀합니다. 문제는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인간관계를 왜곡한다는 점이고 그런 왜곡을 주동하는 장본인 가운데 사회사업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사업가가 당사자를 대상화하여 봉사자에게 대 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사회적 약자니 어려운 이웃이니 하는 사람이라도 평범한 일상으로, 보통의 사회적 관계로 돕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사업가에게 걸려들면 ‘봉사자 대 대상자’라는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뒹굴 짓을 하게 됩니다.¹⁾

1) 자원봉사자 거부선언 / 하나다 에구보

자원봉사자는 나의 적

나는 자원봉사자 그놈들을 거부한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나를 교묘하게 자멸시킨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나를 능숙하게 응석부리도록 만든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바라지도 않는 것을 해 주려 한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겨우 남아 있는 힘마저도 약화시킨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나를 액세서리로 만들어 거리를 확보한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내 휠체어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나를 멋진 젊은이들의 결혼식을 장식하는 가련한 도구로 쓴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나를 여름휴가의 과제로 여긴다.

사람에게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랑받을 뿐 아니라 사랑하고 싶어 하는 '애정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제구실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구실을 하여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싶고 그렇게 존중받고 싶어 하는 '자존 욕구'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 본능에 가까운 기본 욕구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고 구실을 빼앗아 대신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의 자존심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지고 가해지는 봉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맙기는 하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2002. 11. 8 오래전 글입니다. 지금 실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조 : 복지요결 시설 사회사업 편 '봉사자'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관찰일기를 쓰게 한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사회 속에 환상의 섬을 만들어 나를 그 속에 고립시킨다.

나는 그놈들에게 꼬리를 쳤다. 그놈들은 교묘하고 능숙하게 나를 사육하여 길들였고, 더러운 손으로 나의 턱을 어루만졌다.

나는 더 이상 그놈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지 않을 것이다. 또 다시 그놈들의 손이 뻗쳐 오면 나는 반드시 그놈들의 손을 깨물어 버릴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조정자」 썬이노리꼬 저, 박태영·최경익 역, '93 도서출판 은의 pp. 46-47. '자원봉사자 거부선언'에서 발췌

시설 아동들과 어른들이 명절이나 휴일에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쉬지 못하고 얼마나 피곤해하는지를 지적한 어느 신문의 칼럼이 생각납니다. 시설이나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이렇지 않겠지만...

단편

1. 근본이 없으면

사회사업 그렇게 하는 까닭, 근본이란 게 있지 않을까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사업은 근본이 없거나 몰라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근본과 상관없이 해도 되는 일일까요?

사람을 돕는 일인데, 사람다움을 생각지 않으면 어찌 사람을 사람답게 도울 것이며, 사람답게 돕지 않는다면 개나 소 돌보는 일과 무엇이 다른냐는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상이 없으면 어찌 나아갈 수 있으며 철학이 없으면 어찌 바르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상과 철학도 없이 행한다면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생각 없는 사람, 정신없는 일이라 한들 어찌겠습니까?

사회사업 개념이 없으면 ‘사회사업’ 하고 있는지 어찌 알며, 개념 없는 일, 막일이라 한들 어찌겠습니까? 정체성이 없으면 ‘제구실’ 하고 있는지 어찌 알며, 그야말로 아무거나 하는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부린들 어찌겠습니까?

근본이 없으면 무엇에 비추어 성찰하거나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회사업 잘하고 있는지 확신은커녕 확인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어찌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겠습니까?

이렇다 할 근본 없이 그럭저럭 돌아가는 현실, 근본이 무슨 상관이며 무슨 소용인가 싶은 현실, 난데없고 정처 없고 종잡을 수 없어 보입니다. 의아하다 민망하더니 두렵습니다.

2. 전공자

1) 전공과 근본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같은 근본을 몰라도 사회사업가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알게 될지 모릅니다. 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안다고 그대로 다 행할 수 있다거나 다 잘될 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욕구, 정부나 사회의 기대, 기관 사정, 사회사업가 개인의 처지와 역량... 이런 현실에서 보면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같은 근본 이야기는 그저 공리공론에 지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되도록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같은 근본을 세우고 근본을 좇아 행함이 좋겠습니다. 전공자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사회사업을 전공했는데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같은 근본도 없이 행함은 이치에 어긋납니다.

2) 전공과 용어

당사자, 지역사회, 가치, 철학, 복지, 사회복지, 사회사업, 문제, 강점, 장애, 장애인, 복지관, 시설, 지역사회조직, 사례관리...

사회사업 기본 요소들이고 자주 쓰는 말인데 설명하자니 군색합니다. 의사소통이나 실무에 별 지장이 있는 건 아니라도 전공자라면 좀 꺼림칙하지 않을까요?

확실히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게, 똑떨어지는 문장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실무에 닿게,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효용이 있게, 구체화하는 겁니다.

용어와 개념이 사회사업 실재를 얼마쯤 좌우합니다.

3.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삶’이게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삶이고 싶었다. 그 어떤 이유로든 삶의 주연에서 조연으로 떨어지는 것, 능동적인 의지에서 수동적인 자세로 바뀌는 것, 그것은 정말로 참기 힘든, 더없이 어리석은 짓이었다.”

김하인 소설 「국화꽃 향기」 주인공 미주는 위암 말기 환자입니다.

죽어 가면서도 끝까지 품위와 자존심과 사랑과 관계와 삶을 지켜 내려옵니다.

그런 미주에게서,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삶이기를 사람이기를 인간이기를 바라는 절규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대상화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떼어 놓습니다.

두렵습니다.¹⁾

사람, 사람, 사람...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삶’이게 싶었다는 말에, 사람을 ‘사람’으로 지켜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해집니다. 2005. 5. 3

1) 무서운 전문가주의

전문가 가는 곳에 혼을 잃고 구실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직 성할수록 이웃 인정 쇠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인격 관계 해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사람을 우민으로 만들며 사회를 각박하게 만드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섬뜩해질 때가 있습니다.

4. 복지사업 문제와 사회사업 숙제

자꾸만 문제를 들춰내고 문제와 싸우려 드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을 대상화하는 복지사업이 문제입니다.

멸절한 사람 복지대상자 만들어 버리는 과잉 친절이 문제입니다. 약자를 분류 추출, 분리하는 그 어설피론 전문화가 문제입니다.

혼을 도둑질하는 복지사업이 문제입니다.

자존심 죽이고 굶질거리며 애 같은 노릇 환자 같은 노릇 하게 만드는 복지사업이 문제입니다.

당사자를 대신하고 지역사회를 대신하는 복지사업이 문제입니다. 이웃 인정 대신하고 상부상조 대체하는 복지사업이 문제입니다.

항생제 농약 마약 같은 복지사업이 문제입니다.

지금 방식 이견 아니다 하면서도, 마땅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현실을 핑계하며 순응 방조하거나 오히려 편승 가세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복지사업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수습하는 일, 복지사업 폐해에서 사람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일 - 때로는, 특히 지금은 - 이것이 사회사업가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5.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를 위한 종합복지관, 보육원 재활원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따위의 사회복지사 전용 별천지 낙원 만들어 주세요. 공기 좋고 땅값 싼 곳이 ‘딱’이지만 도시도 괜찮아요. 어쨌든 사회복지사 전용으로 따로 만들어 주세요.

사정 진단 평가하여 1급 2급 3급 사회복지사, 4년제 2년제 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 양성과정 학점은행 사회복지사, 담당 팀장 과장 부장 따위로 분류 수용하고 사람 이름 대신 이렇게 불러 주세요.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영세민 될 만큼 가난하대요. 일은 너무 많고 힘들대요. 이렇게 불쌍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라고 서류 꾸며서 돈 따다가 프로그램 많이 돌리고 봉사자 불러다가 돌보게 하고 결연 후련도 넉넉히 붙여 주세요.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놀이치료, 이야기치료, 연극치료, 심리치료... 치료 많이 해 주세요. 생사람 잡아 환자 노릇 시켜도 좋아요. 아참, 사전 사후 비교 평가는 필수예요, 그런데 해석은 엇장수 맘대로 하시고요, 보고서에는 당신 자랑만 잔뜩 늘어놓으세요.

문제덩어리로 낙인찍고 케이스니 사례니 하며 모든 일에 항상 약자인 것처럼 종합대상자로 관리해 주세요. 인격이니 관계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배부르고 등 따습고 편안하고 재미있게 해 주세요. 묻거나 의논하지 말고 알아서 해 주세요.

아플 권리 다칠 권리 실수할 권리? 큰일 날 소리! 책임질 일 생기지 않게 철저히 보호 감독해 주세요. 삶이니 생활이니 그딴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안전하게 생존 연명시켜 주세요. 근본? 가치? 에이~ 현실을 모르는군요. 그냥 실적이냐 채우세요. 2007. 10. 2.

6. 사회복지사는 힘들다?

나는 자신을 동정하는 야생동물을 보지 못했다. 얼어 죽어 가며 나무에서 떨어지는 새도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다.

I never saw a wild thing sorry for itself.
A small bird will drop frozen dead from a bough
without ever having felt sorry for itself.
(Self-Pity by D.H. Lawrence)

영화 ‘지 아이 제인’

미 해군 특전대 선발 훈련에 자원한 사람들에게 교관 어게일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참으로 비장하지 않습니까?

‘이 훈련, 혹독할 것이다. 그럴 줄 알면서도 지원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우는 소리 하지 마라. 엄살 부리지 마라. 결코 자신을 동정하지 마라.’ 이런 뜻 아닐까요?

교관(어게일)은 이 훈련에 대하여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오닐 중위)가 이 훈련에 지원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공공연히 적대감을 드러내 보이며 오닐 중위를 아주 혹독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오닐 중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는 소리 하거나 엄살 부리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이겨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막사 안 오늘 중위의 자리에 시집 한 권이 보입니다. 훈장이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습니다. 어게일 교관이 걸어 나가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중위가 책을 펼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시 'Self-Pity'가 클로즈업되며 영화가 끝납니다.

“나는 자신을 동정하는 야생동물을 보지 못했다. 얼어 죽어 가며 나무에서 떨어지는 새도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다.”

여느 사람이라면 일찌감치 그만두었을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엄살 부렸을지 모릅니다. 할 만큼 했다고, 더는 못하겠다고, 이 정도면 잘 견딘 거라고, 스스로 동정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중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생에서 자기를 동정하며 나약하게 살아가는 짐승이 있더냐? 동사하여 떨어지는 작은 새도 결코 자신을 동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자기 처지를 동정하지 마라. 신세 한탄하지 마라. 우는 소리 하지 마라.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라. 결연한 의지로 강인하게 감당해라.”

교관의 이 훈계처럼 오늘 중위는 곳곳이 이겨냈습니다.

작은 새도 그리하거늘
하물며 사람임에랴.

알면서도 스스로 택한 사회사업임에랴.

7.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이론이 실천으로 실천이 이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론 속에 실천이 실천 속에 이론이 있음을 봅니다. 이론과 실천은 본디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고 느끼는 건 배운 것이 적고 어설프기 때문 아닐까요? 아는 이론이 적어서 이런저런 현실에 적절한 이론을 적용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이론과 현실은 서로 짝이 있습니다. 이론도 다양하고 현실도 다양하여 저 이론이 통하는 현실이 따로 있고 이 이론이 통하는 현실이 따로 있습니다.

저 이론이 이 현실에 맞지 않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이론이 어떤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건지 밝히지 않고 그저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 함이 어찌면 저 상황에서 나온 이론을 이 상황에 적용해 보고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 맞는 이론을 몰라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 현실과 다르다는 그 이론이라도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지 의문입니다.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기보다 공부가 부족하다 함이 사실에 가까운 건 아닐까요?

스패너로 풀어야 할 너트를 펜치로 풀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잘 풀리지 않는다고 어찌 펜치를 탓하겠습니까?

아는 것이 넓고 깊으면 적절히 선택 조합 응용할 수 있을 텐데, 서툰 목수 연모 나무라듯, 두레박줄 짧은 줄 모르고 우물 깊다 한탄합니다.

8. 지역 주민이 자원?

1) 지역 주민은 주체입니다.

지역 주민을 자원이라 합니다. 복지사업을 위해 개발 동원 활용할 자원이라는 겁니다. 복지사업을 중심에 두고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중심에 두고 보면 지역 주민은 그 사람살이의 주체이지 자원이 아닙니다.

저마다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살이의 주체입니다.

2) 지역 주민은 사람입니다.

자원은 그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물질 재능 정보 지식 지혜 체력 시간 위로 응원 따위가 자원입니다. 그 사람이 담당하는 동원할 수 있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복지 수단이 자원입니다.

지역 주민을 자원이라 하는 뜻을 모르지 않으나 그래도 사람을 자원이라 함은 꺼림칙합니다.

9. 주간보호센터

1) 복지사업으로 대상자를 보호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당사자의 삶이 ‘보호’라는 말에 묻혀 버립니다. 보호한다 하니 생활을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삶을 생존·연명으로 바꾸어도 꺼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삶을 거들자고 하는 일인데, 보호센터라 하니 당사자의 삶은 간데없고 복지사업만 드러나기 쉽습니다.

2) 보호한다는 말은 주로 나이 어린 사람을 가리켜 쓰는지라, 성인이나 노인을 대하여 ‘보호한다’ 하기가 미안합니다. 애 취급하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형세가 되곤 합니다.

노인 돌보미, 산모 도우미, 장애인 활동지원 - 다 같은 사회서비스인데 돌보미 대상과 도우미나 활동지원 대상은 그 격이 크게 달라 보입니다.

특히 거북스러운 이름은 노인 돌보미입니다. 노인을 모신다 섬긴다 수발한다 시중든다 하면 자연스럽고, 노인의 생활이나 건강을 돌본다 해도 거슬리지 않으나, ‘노인을 돌본다’ 하면?

3) 보호센터는 보호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말이니 보호 대상자가 주도적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당사자가 이용한다는 뜻이 되는 이름이면 좋겠습니다. 당사자가 주인이고 어른임을 말해 주는 이름이면 좋겠습니다.

‘보호한다’ → ‘이용한다, 활동한다, 머문다.’

이렇게 주어를 당사자로 하고 동사도 당사자의 행위를 가리키게 하면 좋겠습니다.

10. 빈곤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를 ‘빈곤 아동 중심 회원제 조직’으로 꾸며야 한다면, 수급자 차상위 조손 편부모 다문화 장애 같은 조건으로 아동을 분류 선별해야 한다면, 출석률로 아동을 구속해야 한다면?

1) 정원과 비율

행정 문서에는 적격? 아동을 선별하여 일정 수·비율 이상 채워 넣습니다. 실제 이용 아동 가운데 적격 아동이 부족하면 이에 대해 아이들과 돌래 사람에게 설명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2) 출석률

출석으로 인정할 만한 ‘가상 활동’을 만들고 그에 관해 아동과 합의하면 양심에 거리낄 것 없이 출석했다 할 수 있습니다.¹⁾

3) 서류와 실제

1318 해피존이 서류상 지역아동센터이나 실제로는 청소년센터인 것처럼, 법이든 지침이든 매뉴얼이든 요구하는 대로 서류만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실제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좇아 행할 일입니다.

1) 아이들이 자주 가는 곳, 갈 만한 곳, 가고 싶어 하는 곳, 가야 할 곳, 견학·탐방·답사하기 좋은 곳, 자기 집, 친척 집, 친구 집, 가족의 일터, 학교, 동네, 산, 바다, 강, 들, 놀이터, 도서관, 오락실, 서점, 논밭, 인터넷 같은 곳에서 하는 현지 활동, 재택 활동, 사이버 활동을 다양하게 개설해 두면, 아동이 센터에 안 오거나 못 오는 날,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활동하고, 오는 날 출석부에 표시하는 겁니다.

평소 아동과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함으로 해 왔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요식 행위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이 과정 자체가 사회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11. 폐지와 복지사업

폐지를 모아 불우이웃을 돕는다?

1) 폐지는 그분들의 생계이고 삶입니다. 이웃을 만나고 이웃과 소통하는 길입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살림살이입니다.

불우이웃 그분들은 폐지를 수거함으로써 주민을 돕습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분들의 살림살이는 주민을 살림으로써 살고 주민을 살리면서 사는 겁니다. 주민도 폐지로 그분들을 만나고 돕고 어울립니다.

폐지는 서로 살림으로써 살고, 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살이 소재입니다. 그분들에게는 폐지가 삶의 활력소이고 희망이고 낙인지 모릅니다. 건강과 자존감을 붙들어 주는 한 가닥 끈인지 모릅니다.

2) 폐지를 모아 돕는 일은, 복지사업이라는 미명으로 그분들의 삶을 빼앗는 일인지 모릅니다. 삶을 거두어 연명케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폐지가 그분들에게 있을 때는 삶이지만, 모아서 대신 베풀면 연명이 되어 버립니다. 연명이라도 도와야 할 때가 있지만...

이웃 간의 자연스러운 사람살이 속에 있던 관계와 소통을 끊어 버리고 대신하여 돕는다면 사람살이 생태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최선인지 모르는 채, 자기 필요에 속고 자기 최선에 만족하며 자기 이름만 높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뿌듯하고 사람들도 칭찬하나 당사자는 더욱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12. 걸인을 만날 때

걸인을 보면, 지금도 어렵습니다.

첫째, 명색이 사회사업가인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모르니 자괴감과 무력감이 듭니다.

둘째, 그러면서도 잘 입고 잘 먹고 안락한 집에서 편히 지낸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사회사업가라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 제 일이나 잘하면 된다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버젓해 보입니다. 가난하게 만드는 환경, 가난이 문제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약자가 되는 사회,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 그런 사회 모순과 불의에 분노하고 저항하고 투쟁하는 분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군색한 변명으로 외면하고 회피하는, 의식도 의지도 용기도 없는, 제 모습이 민망합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현실에 붙잡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1999. 12. 28 ~

13. 경제 공동체, 먹고사는 문제

경제 공동체, 마을 공동 경제 활동...

이는 사회사업가가 경계해야 할 유혹입니다.

수령 같은 일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좋은 일을 못하거나 소홀히 하게 됩니다. 아니, 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물질적 부를 통한 마을 공동체, 이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을 공동 경제 활동, 그럴듯하지만 성사하기 어렵고 지속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마을의 평화, 생태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욕심 불평 시비 다툼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사업가가 마을 기업, 농산물 유통 같은 일에 나서야 할까요? 그래도 될까요?

경제 공동체, 마을 공동 경제 활동, 마을 기업...

경쟁에 속하는 일은 아닐까요?

사회사업가로서는 조심스럽습니다. 경제 활동이 남과 경쟁하여 남의 몫을 빼앗거나 남을 딛고 서는 것으로 보이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회사업은 경쟁이 아니라 공생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4. 복지정책과 사회사업

복지정책은 사회사업보다 그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하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과연 복지정책이 사회사업보다 크거나 중요하다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교한다면 농업, 환경, 자원, 물, 인구, 인문, 종교 관점에서 볼 때 복지정책은 사소한 말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마실 물이 부족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정신과 영혼이 죽어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복지정책을 말함은 침몰하는 배에서 투정 부리는 꼴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사업을 견주어 대소경중을 나눌 일이 아닙니다. 저마다 맡은 일에 충실하되 서로 존중하고 상호 보완·협력할 일입니다.

복지정책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과 다른 지평에서 있으나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애써 이룬 제도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직접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소중한 동료들입니다.

15. 무임승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그때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남들이 쟁취한 것을 무임승차하는 당신, 부끄럽지 않은가?”

1) 자기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 참여를 독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무임승차하는 사람이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도 남이 애써 만든 것을 거저 누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까? 손이 입에게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어찌하여 말만 하고 있느냐?” 한다거나, 발이 머리에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어찌하여 생각만 하고 있느냐?”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할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비난함이 이와 같습니다.

2) 이런저런 사회문제가 끝없이 일어납니다. 분노하고 저항하고 개혁하고 쟁취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일까요?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어떤 해결책이 최선일까요? 사회 운동, 어떤 일에 어떻게 어디까지 나서야 할까요? 기준이 있을까요? 합의할 수 있을까요?

사안이나 해결책이나 참여수준을 합의할 수 없고, 사람마다 생각이나 구실이나 처지가 다르니, 강요하거나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3) 그러니 사회적 과제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해도 될까요? 제 일만 잘하면 사회적 책임, 그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신 없습니다.

16. 원칙과 변통

1) 나름대로 자기 실천의 근거로서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사업에 절대 원칙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옳은 사회사업 원칙이라는 게 있을까요?

‘생명 존중 원칙’은 어떨까요? 이 생명을 살리면 저 생명이 위험하거나 저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 이쪽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쪽 생명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게 있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존 연명시킬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존엄하게 살고 죽고 싶은 욕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끝내고 싶은 욕구에 반하여 생존 연명시킬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2) 나름대로 세운 원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가르치거나 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마다 생각이 있고 사정이 있음을 헤아려, 대개 한 두 번 말하여 듣지 않으면 그만두는 게 좋을지 모릅니다. 자칫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인 태도, 무례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며 나도 그 상황에선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미처 생각조차 못한 뜻이 있을지 모르고, 그 행위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요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사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는 그게 최선인지 모릅니다.

3) 다름을 생각합니다. 사람 사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여지를 둡니다.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더하면 달라질지 모른다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변통을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응하고 처지에 맞게 행하자 합니다.

이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이런 자세로 사회사업하려 합니다. 다만 이것도 절대 원칙은 아닙니다.

① 이런 논리의 가치는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관용,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에 끝어다 씌운 온당치 않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다만 다를 뿐’이라 하여 반성도 변화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독선과 아집에 빠지게 되고 소통은 절로 떨어질 겁니다.

② 이쪽을 인정하면 저쪽이 부정되는 상황, 이 가치를 따르면 저 가치를 거스르게 되는 상황, 사회사업에는 이러한 갈등이 상존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저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 양립할 수 없는 둘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 둘을 겸하여 취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③ ‘절대 원칙이 있다는 주장,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다른 방식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까지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고집하지 말자’ 함도 일종의 고집입니다.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는 말처럼 모순입니다.

④ 상대를 지나치게 인정 존중 배려하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가 항상 좋을까요? 운동 주체나 목표나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⑤ 약자를 위협 억압 착취하는 세력, 약자의 인권이나 복지에 반하는 일,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해치는 행위까지 인정하고 존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17. 지원신청

1) 바깥 자원은, 쓰기 나름이지만, 자칫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정신을 병들게 하거나 사람 사이 관계와 인정을 해치기 쉽습니다.

당사자가 개발 유치 활용하면 부작용이 덜할 수 있으나, 사회사업가가 대신 해 주면 위험합니다. 해가 깊습니다.

2) 지원신청서가 더러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지원하는 쪽에서도 대상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기술하게 요구합니다. 사람을 상품화하게 만듭니다.¹⁾

문제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기 쉽습니다. 대상자의 인격 자존심 팔아먹기 쉽습니다. 함부로 문제라 규정하고 전문적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들이대기도 합니다. 심하면 생사람 잡아 대상자 만듭니다.²⁾

1) 프로그램 지원 사업

① 사회사업을 문제 중심 사업으로 몰아갑니다.

② 어떤 지원 단체의 지침서대로 ‘사업의 필요성’만이라도 제대로 연구해 낸다면, 사전 사후 평가만이라도 제대로 해 낸다면, 그 작업만으로도 꽤 많은 연구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구자들이 흔히 그런 기획서|보고서로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③ 기획서 쓰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보상합니까? 지원금 총액이 기획서 쓰는 데 드는 총비용보다 클까요?

④ 힘과 시간을 지나치게 낭비 소모합니다. 사회사업가들을 피곤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기회비용이 너무 큼니다. 사회사업 안정성을 해치고 사회사업 발전을 왜곡 방해할 수 있습니다.

2) 사람 비참하게 만들어 재화를 얻어다가 그 재화로 또 사람 비참하게 만듭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환자 만들어 약 동냥하고 그 약으로 병을 키우거나 다른 병을 일으키는 꼴입니다.

문제를 다루는 사업이라도 그 필요성을 쓸 때 당사자의 인격과 자존심을 헤아리고, 당사자와 가족을 비롯하여 누가 보아도 떳떳할 수 있게 쓰면 좋겠습니다.

3) 허구한 날 컴퓨터에 무슨 볼 일이 그리 많은지, 사람은 뒷전이고 지역사회도 외면한 채 모니터를 향하여 지원신청과 사업 포장에 매달리는 모습이 민망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컴퓨터 하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인사하기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지역사회 두루 다니며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도박장입니까? 포장 업소입니까? 지원 금품 농칠세라 베풀하기 바쁘고 남에게 뒤질세라 사업실적 꾸며 맞추기 바빠 사람은 자꾸 멀어지는데 컴퓨터는 제사 모시듯 하니 누구를 위함인지...

4)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해야 할 일인데,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그저 얻어다 해 주려 합니다.

어디서 뭐 주는 거 없나 해매고, 찾으면 받을 만한가? 신청해 볼까? 궁리하느라 시간 잡아먹고, 그 기준에 맞추어 사업 만들고 지원신청서 쓴다고 시간 잡아먹고, 지원 금품 수령한다거나 교육 받는다고 시간 잡아먹고, 사전 사후 평가한다고 시간 잡아먹고, 증빙자료 챙긴다고 시간 잡아먹고, 평가 대비 감사 대비 사업 포장하느라 시간 잡아먹습니다.

이런 일 하느라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대하여는 함께 있어 주고 살펴보고 안아 주고 이야기 들어 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5) 지원신청, 꼭 해야 합니까?

지역사회에 두루 다니며 한 명 두 명 만나다 보면, 지역사회에, 사람들 속에,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도울 만한 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역사회에 무궁한 자원과 가능성과 기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깥 자원까지 얻어 와야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사람과 자원이 생기고 사랑 감동 인정 넘쳐나고 이런 게 사람 사는 건가 보다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데 이렇게 좋은 걸 버리고 외부 지원에 매달려야 합니까?

지원신청, 본전이나 건집니까?

동냥하려다가 추수 못 보는 꼴 아닌가 싶습니다.

6) 김 선생은 외부 지원금을 마중물 삼아 당사자와 지역사회에서 물을 퍼 올렸습니다. 상수도나 급수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살리고 시내에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버려진 우물, 무너진 우물을 고쳐 짓거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마을에 물길을 내었습니다. 굶이 굶이 돌아가는 물길을 내어 사람 사이 어디에나 복지가 흐르게 했습니다. 마중물로써 당사자의 복지 자연력을 끌어올렸고 지역사회 복지 자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자연력을 사람살이 생태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종자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사업을 지원할 때 그 지원금으로 사업 기반을 만들라 합니다. 무기한 지원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종자돈이라는 말입니다. 김 선생은 종자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얻어다 먹이지 않았습니다. 일회용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외부 지원금을 종자 삼아 마을이라는 땅에 심었습니다. 그 땅 속을 헤집고 다니며 생기가 소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자연력으로 자라고 열매 맺게 했습니다. 그 열매가 다시 씨를 내었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18. 학습권 운동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시행 이후 필수과목 이외의 전공과목이 많이 줄었습니다. 선택 여지가 없을 만큼 전공 강좌가 부족합니다.

시험 필수과목은 콩나물 교실이 되어 갑니다. 필수과목은 수강신청에 서부터 출석점검, 강의진행, 과제와 시험, 평가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¹⁾

학교는 사회복지학과에 시설·기자재·공간 어느 쪽으로도 별로 투자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업료를 받습니다.²⁾ 학습권을 찾아야 합니다.

- 1) 사회복지학과 교수:학생 비율을 최소한 해당 대학 평균 수준까지 개선해야 합니다. 교수:학생 비율 - 교육부 기준 1:25
- 2) 선택과목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 3) 전공과목 정원을 해당 대학 평균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 4) 사회복지학과 시설·기자재, 학생활동 지원 규모를 학생 수에 비례하여 해당 대학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2002. 2

1) 부지런히 학생들을 살피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교수님, 학생에게 꿈과 열정을 심어 주고 좋은 현장 연결해 주고 좋은 강좌세미나에 이끌어 주는 교수님, 사회사업가를 자주 만나고 그 생생한 사례를 강의에 활용하는 교수님, 학생들은 이런 교수님을 목말라합니다.

혹시 연구실적 올리랴 외부 용역 하랴 바쁘고, 사회·발표·토론하느라 바쁘고, 다른 학교에 강의 다니느라 바빠서, 정작 학생들에게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부 주야간, 대학원, 특수대학원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모집 인원까지 늘리는 바람에 교수님들도 힘겨워합니다.

2) 한 학기에 400만 원쯤 냅니다. 한 학기에 18학점을 신청하면 실제 수업시간이 200시간쯤 됩니다. 시간당 2만 원을 내는 셈입니다. 수강생이 100명이면 한 시간 수업에 200만 원(30명이면 60만 원)을 내는 셈입니다.

19. 행사 방식

1) 핵심 고객에게 주력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케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목표와 방식에 동조하는 핵심 고객에게 주력합니다. 제대로 해 보고자 하는 사람, 성실하고 뜻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라리 불평을 듣는 편이 낫습니다.

이는 잘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고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약한 사람을 위하지 않음이 아닙니다.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초보자, 뒤쳐지는 사람, 수동적인 사람, 열정 없는 사람, 주변인 -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방법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수준에 맞추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을 낮추면 결국 어떤 사람이 남겠습니까? 제대로 누리고 배우려던 사람은 실망하여 다시 오지 않을 테니 그저 그런 사람만 남을 겁니다. 남은 사람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낮은 수준 행사에서도 배우는 바가 있고 또 당장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봐서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사 수준을 높여서 뜻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잘 누리고 배우고 성장하게 돕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긍정적 기운이 나머지 사람들을 견인할 겁니다. 상향평준화입니다. 이 방식이 약한 참가자들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제대로 얻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이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얼마쯤의 허점과 사각지대는 상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판을 깰 만큼 해롭지 않다면 말입니다. 핵심에 주력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모두를 위해 좋을 겁니다.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을 헤아려 선택, 집중해야 합니다.

정보원은 ‘핵심 고객, 정예복지인의 긍정적 분위기, 높은 수준의 행사 문화, 목적에 충실한 진수’를 선택했습니다. 보통은 이것이 약자에게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핵심 고객에 맞추어 수준을 높이자 함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도우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¹⁾

2) 참가자가 주체가 되는 참여형 행사를 지향합니다.

기획부터 준비, 실행, 정리,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주체로 참여하게 합니다. 참가자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행사 주체로 기여하게 합니다. 선택강좌처럼 관심과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 현장에서 제안하고 동조자를 모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참가자가 준비해 온 것으로 함께 궁리하고 발표하는 소집단 워크숍, 자유 발언과 공연, 노래와 파티를 안배합니다.

3) 검소하고 실속 있는 행사를 지향합니다.

1) 머리와 가슴 사이

각 사람의 사정과 처지를 고려하여 다 포용하기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고도의 조직을 지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나 소외감을 주었을 겁니다. 정보원 활동은 이러한 고통을 대가로 치러 왔습니다.

이 방식이 저를 괴롭게 하며 또 저를 소외시키곤 합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비난은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괴로워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지난 십 수 년 동안 머리와 가슴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아직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제게는 더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을 귀히 대하고 따뜻하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6. 5. 18

4) 봉사하는 사람이 먼저 잘 누리며 배우고 성장하게 합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 일을 맡은 사람이 잘 누리고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풍성하게 즐기고 누리고 배우고 성장하기, 이는 자신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동료들까지 유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배우지 못한다면, 동료를 위한답시고 바치는 수고가 동료에게도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당에서는 강의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강당 밖에서 안내하고 있거나 사람들을 부르러 다니거나 이것저것 일을 챙긴다고 합니다. 주최 측 사람이 강의를 이렇게 대하니 일반 참가자가 어떻게 됩니까? 불일 다 보고 들어가도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행사 목적과 일정을 밝혔으면 나머지는 참가자 몫입니다. 참가자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탄 짓 하는 사람, 늦게 들어오는 사람, 강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들어가 기다리는 사람, 적극적으로 잘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소중한니까?

비협조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탄 짓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놓아두고 일단 들어가서 핵심고객과 함께 핵심에 집중함이 좋습니다.

때가 되면 만사 제쳐 두고 먼저 들어가서 좋은 자리에 앉아 경청하고, 이기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강사도 신나서 더 잘하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강사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주최 측 사람이 밖에서 다른 일 하거나 들락거리거나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맥 빠지는 일 아닐까요?

주최 측 사람이 먼저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누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게 자신과 남을 위한 길입니다.

말은 일이 다소 잘못되더라도, 일부 참가자들이 불평하더라도 낙담하거나 껄뚝치 말고, 핵심에 긍정적으로 몰입해야 합니다. 부정적 요소에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긍정적 요소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최 측 사람의 부정적 생각, 패배감, 부정적 기운, 부정적 평가, 부정적 표현이 행사를 망칩니다. 행사 참가자들을 위한답시고 걱정해 준답시고 하는 말이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저 강사·진행자가 죽 썩고 있으니 어떡하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애태우면 그 부정적 기운이 전체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강의·발표가 끝나자마자 주최 측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힘드셨죠, 줄리시죠, 지루하시죠, 피곤하시죠,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아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여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강의·발표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 하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는 잘 들은 사람들 기분까지 잡치게 합니다. 감동·여운을 깨 버리고 부정을 확대 재생산하여 긍정을 덮어 버리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같이 한단 말입니까?

강의·발표를 경청하되 내게 유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배우고, 그렇지 않은 건 거울삼아 나를 다듬고 수양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다 내게 유익하니 긍정적 기운을 발산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사회할 때도 긍정적으로 표현하겠지요. 이것이 모든 참가자에게 유익합니다.

강의·발표를 평가하고 행사 걱정이나 하고 있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며 다른 참가자에게는 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부정적 기운을 내어 전체 분위기를 어둡게 할 뿐입니다. 백해무익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기가 행사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강의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잘되지 않을수록 먼저 내게 유익하도록 뜻을 찾고 스스로 기운을 내어 적극 경청하고 참여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부정적 기운을 덮어 버릴 만큼 긍정적 기운을 뿜어내야 합니다.

행사가 잘되고 못되고는 기 싸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핵심에 집중하여 긍정적으로 몰입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마음 쓰지도 말고 대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소원수리 하듯 문제를 끄집어내는 건 대개 좋은 수가 아닙니다. 문제에 말려들지 않고 문제를 소외시켜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5) 제휴, 협력합니다.

공연, 선택강좌, 특강, 전시회, 전문분과활동 같은 단위 프로그램을 적절한 기관이나 팀 혹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되, 기획·준비·진행 전 과정을 그들의 명의로 하게 합니다. 초대 손님이 아니라 함께 행사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 세워 드립니다.

2002. 2 정예화캠프 원칙

20. 사회사업이 무엇입니까?

1) 불쑥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일정한 대답이 있겠습니까? 묻는 사람이 누구이며 왜 묻는지, 어떤 수준으로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헤아려서 각각 달리 대답하지 않겠습니까?¹⁾

2)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인생과 세상에 대해 깨닫는 만큼 사회사업에 대하여도 그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사회사업가의 길은 수도자의 길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²⁾

1) 누가 선뜻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밀도 끝도 없이 던지는 질문에... 더구나 시험하듯 묻거나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대답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사업가라면 자기가 하는 일을 밝히 분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한 문장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학창 시절 세계 사회사업은 성숙한 사람의 덕행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도움 나눔이었고 우리네 사람살이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돕는 일이 사회사업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1. 사회사업 동기

1)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는 이리하고 하나는 저리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 적성 가정환경, 둘째 사람의 권유, 특별한 사건이나 체험이 동기가 되어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저 좋을 것 같아서 또는 성적 때문에 선택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동기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기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생각은 해 봤지만 아직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꼭 동기가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동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없거나 표현력이 부족해서,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이거나 귀찮아서, 말하기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사업할 자격이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동기가 분명하여 확신 가운데 실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기왕에 전공이나 직업이 되었으니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애정을 갖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2) 사회사업도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거나 자책한다면 이는 각박하기가 결벽증에 가깝습니다.

사회사업만큼은 자기만족과 무관할 수 있을까요? 글썄요. 궁극적으로 자기만족에 닿지 않는 행위가 있을까요? 가령, 물에 빠진 이웃집 아이를 건져 주는 행위가 그 아이의 부모에게 무엇을 바라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건져 주지 않아서 오는 죄책감·원망·비난이 두려워서도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아이를 건져 줌으로써 결국 자기만족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3) ‘남을 이롭게 함이 실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사회사업이 그러합니다.

사회사업가는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자신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고, 남을 이롭게 하려고 자신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4) 남을 돕는 동기가 자기만족에 있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자신도 만족할 수 있다면 서로 기뻐할 일이지 껴리거나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설사 얻을 것을 바라고 도울지라도 그것이 탐욕이 아니라면 너무 각박하게 몰아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적 동기에서 도울지라도 그로써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기뻐할 일인지 모릅니다.

5) 온전히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온전히 남만 위하고 자기는 온전히 희생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자기는 온전히 버리고 오로지 남을 위한다고 한들 그것이 반드시 선한 일이겠습니까? 돕는 사람이 보상은커녕 자기만족도 없이 온전히 희생만 한다면 도움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존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미안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6) “명예를 좋아한다는 비방을 피하려 한다면 감히 착한 일을 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선행까지도 그 동기를 따져 비방한다면 세상에 누가 감히 남을 도우려 하겠습니까?

자기 일에 기뻐하며 낙을 누림, 이는 그 사람의 복입니다.

사회사업이 좋아서 사회사업하기, 사회사업으로써 만족하며 낙을 누림, 이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22. 고기가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1) 탈무드 이야기

- ① 고기를 줍니다.
- ②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¹⁾

2) 생태 이야기

당사자가 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어구를 장만하게 돕습니다. 어장에 장애나 차별 없이 접근하여 고기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3) 사회사업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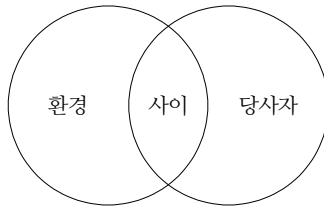
- ① 당사자가 고기를 얻게 합니다.
둘레 사람이 고기를 주게 합니다. 고기를 잡거나 살 때 조금 더 잡거나 사서 나누게 주선했습니다.
- ② 당사자가 고기 잡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거나 사람 들에게 물어보게 돕습니다.
둘레 사람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게 합니다. 생업이나 취미로 고기 잡는 김에 가르쳐 주게 주선했습니다.²⁾

1) 둘 다 문제의 원인이 당사자 쪽에만 있다는 듯, 당사자만 상대합니다.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하여 고기를 얻지 못하니 고기를 주겠다, 고기 잡을 줄 몰라서 고기를 얻지 못하니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고기를 줌으로써 족할 수도 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줌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주거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일도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둘 다 사회사업가가 취할 대담이 아닙니다.

2) 생선 유통 정보 제공, 구매 비용 지원, 시장 접근성과 유통 질서 개선은 어떻습니까? 생선 문제가 정치나 경제, 다국적 기업이나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면?

23. 이념과 관점



1) 우파 : 개인 관점

당사자 쪽 조건에 주목합니다. 당사자를 바꾸려 합니다. 당사자를 치료 교육 후원하여 환경에 적응하게 돕는 겁니다.

2) 좌파 : 환경 관점

환경 쪽 조건에 주목합니다. 환경을 바꾸려 합니다. 편의시설 같은 물리적 조건과 제도 인식 문화 같은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여 당사자 쪽에 적응하게 돕는 겁니다.

3) 중도 : 생태 관점

당사자와 환경 양쪽을 헤아려 그 사이를 좋게 합니다. 한쪽의 적응보다 상호 적응을 돕습니다. 당사자를 직접 도울 뿐 아니라 환경을 바꾸기도 하여 이쪽과 저쪽이 잘 맞게 하는 겁니다.¹⁾

1) 사회복지사는? 1950~1970년대 사회사업 전공자는 우파 색이 짙어 보입니다. 1980년 전후로는 좌파 성향을 보이더니 지금은 우파에 가깝거나 이념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전공은 중도, 주장은 좌파, 실천은 우파? 대학에서는 중도나 중도좌파나 좌파에 가까운데 취업하면 갑자기 우파에 붙는 변절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극단적 우파, 극우파 말입니다. 마치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이 당사자에게만 있다는 듯 당사자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데 치중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24. 강점 사회사업

1) 사이렌과 오르페우스

지중해 어느 섬에 사이렌이라는 요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가 지나가면 감미로운 노래로 유혹했습니다. 요정 노래에 홀린 선원들이 그리로 다가가다가 좌초하여 요정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무사히 통과한 배가 두 척 있었습니다.

① 용맹한 영웅 울리시스

울리시스는 선원들 귀를 밀랍으로 막아 요정 노래를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몸은 돛대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살아서 지나갔습니다. 요정 유혹과 고통스럽게 싸워 이긴 셈입니다.

② 음악 영웅 오르페우스

오르페우스는 사이렌 노래보다 더욱 감미롭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선원들은 요정 노래에 홀리지 않고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오르페우스 연주를 가까이하니 요정 노래는 절로 멀어진 겁니다.

그리스신화

2) 바위와 강물

양쯔 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바위를 만났습니다.

“바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위를 없애 주라, 강물이 불어나게 해 주라?”

워치만 리가 기도하다 본 환상 이야기라고 합니다.

① 바위와 씨름합니다.

바위를 깨뜨리거나 치워 줍니다. 배를 들어 줍니다. 우회 수로를 만들어 줍니다. 이는 미봉책입니다. 지금 이 바위를 해결해 주면 이곳은 지나가겠지만, 긴 항해에 이 바위뿐이겠습니까?

② 바위를 무시하고 따돌립니다.

지금 이 바위뿐 아니라 다른 바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듭니다. 배와 강의 탄력성으로 바위의 영향을 희석 상쇄 무력화하는 겁니다.

- 바위를 상대하지 않고 배와 상관합니다. 어떤 바위도 넘을 수 있는 구조나 장치를 갖추게 합니다. 배의 탄력성으로써 바위를 넘게 하는 겁니다.

- 바위와 씨름하지 않고 강물과 상관합니다. 강물을 불립니다. 강의 탄력성으로써 배를 띄우는 겁니다.

3) Dream vs. Stream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a fantasy, to help me through reality.
And my destination makes it worth the while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still another mile.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I'll
cross the stream - I have a dream : Abba

어려운 일이 없거나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난관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길이 험하거나 멀지 않고 현실의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미래가 절로 다가와 주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꿈이 있고 부를 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을 건널 수 있고, 때로 실패할지라도 끝내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멀고 험한 길이라도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현실을 피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싶다 합니다.

anything, the future, the stream, reality, the darkness

이는 눈앞의 과제 또는 살아가면서 부닥치게 될 난관입니다. 문제 약점입니다. 없는 게 좋기만 할까요? 그런 게 인생일까요?

dream, song, vision, angel, something good, fantasy, destination

이는 강점입니다. 이러한 강점이 있으면 당사자가 cope with anything 할 수 있고, take the future 할 수 있고, cross the stream 할 수 있고, through reality 할 수 있고,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할 수 있습니다.

4) 강점 관점, 강점 중심

① 임의로 일을 만들 때는

무엇을 보고 일을 벌이는가에 따라 강점 관점과 문제 관점으로 나눌 수 있고 강점 중심 사업과 문제 중심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다룰 때는, 강점 관점이 아니면 무슨 관점일까요? 강점 중심이 아니면 무엇 중심일까요?

② 문제를 다룰 때는

어떤 실천 유형이든 문제를 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다 문제 관점입니다. 다 문제에 대응하여 벌이는 문제 중심 사업입니다.

다만, 문제는 강점을 살려 해결할 수도 있고 약점을 다스려 해결할 수도 있으니 이때는 강점 관점과 약점 관점, 강점 중심 접근과 약점 중심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사업 실제에서 문제를 다룰 때 더 흔히 볼 수 있는 ‘강점 관점의 반대 관점’은 ‘강점 관점’입니다.

당사자 쪽 강점에 주목하여 그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돕는가?
사회사업가 쪽 강점에 주목하여 그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어느 쪽 강점에 주목하고 어느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는가? 이런 차이입니다.

25. 티핑 포인트

1) 티핑 포인트

조금씩 발전하다가 그때까지 쌓인 것을 바탕으로 극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티핑 포인트에 이르기까지는 더디고 힘들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적은 비용 노력으로도 쉽고 빠르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다 보면 사회사업에 문리가 트여서 그 후로는 일을 쉽게 이룰 수 있는데, 문리가 트이는 그때가 바로 사회사업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2) 네트워크 효과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효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당사자와 둘레 사람들 사이에,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지역사회 속에, 복지 기능이 살아나고 이리저리 연결되면서 효용이 곱셈하듯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사회사업가들의 실천 방법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서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3) 고착화

어떤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요금을 부과하거나 올려도, 더 좋은 서비스가 나와도,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고착화라고 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방식을 몇 번 경험해 보면 복지 당사자도 사회사업가도 이 방식을 바꾸려 들지 않음이 이와 같습니다. 마땅함 수월함 재미 감동 알게 되니 여간해서는 이 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정겨운 사람살이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복지인의 길을 간다